

2016 겨울 통권45호

가톨릭 사회복지

<http://caritas.cbck.or.kr>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목차

04 ● Caritas거울(鏡)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를 되돌아보며
(백진희 부장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19 ● Caritas 지식인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진옥 관장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34 ● CaritasVision 흐름과 전망

카리타스학 실천 방법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전영순 필립보 수녀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45 ●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회복지

초지일관 장애인과의 동행
(대담 정리 : 곽재복 제노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53 ● **특화된 교구 사회복지회(국) 소식:**

제주교구 ‘제주스마트복지관’(가상복지관) 인터뷰 - ‘우리 동네 작은 복지관’
(송장희 / 제주스마트복지관 총괄팀장)

58 ● **Caritas 외침**

세상의 모든 이를 만나는 곳, 나래울
(이종길 / 前 관장)

69 ● **가톨릭 사회복지 영성 지상 중계**

가서 열매를 맺어라
(최정묵 바실리오 신부 /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국장)

75 ●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소식**

81 ● **영성자료** DOCAT

82 ● **주소록**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를 되돌아보며



백진희 부장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들어가며

교회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교 원리를 밝히고 옹호하며, 이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전국 차원의 모임 자리를 만들곤자 시작된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2006년 첫 대회를 치른 지 10년 만에 어느덧 7회의 행사를 마쳤다.

어느새 1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대회를 정리함으로써 초기 취지의 이해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향후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축제!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7회를 돌아보며

【설레는 첫 만남! 제1회 사회복지 대회】

- 대회 일자: 2006년 7월 4일(화) - 6일(목), 2박 3일
- 대회 장소: 대전 정하상교육회관
- 참가자 규모: 약 241명
- 2006년도 대회 주제: ‘우리는 카리타스인!’
- 일 정

*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난입니다.

7월 4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미사 • 주제 강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유흥식 주교 • 초청 강연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 강사: 임임택 (시각장애인 기타리스트) • 카리타스인의 밤 I(레크리에이션)
7월 5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미사 • 주제 세미나 “우리는 카리타스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도건창(카리타스아카데미) “우리는 카리타스인인가? – 카리타스학의 관점에서 본 가톨릭 사회복지 조직과 종사자의 자기 이해 –” – 토론자: 박문수, 장상원 신부, 김광환 ② 교회와 일반 사회복지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박석돈(경북대학교 석좌교수) “교회와 사회복지 – 한국가톨릭사회복지사업의 과제와 전망–” – 토론자: 신동민 신부, 이재모, 윤정옥 수녀 • 초청 강연 2: ‘고정관념 와장창 깨기’ – 강사: 최윤희 • 현장 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대원 신부(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장, 제주 애덕의집 원장) – 최분이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알코올중독자자립공동체 소보동지 원장) • 분야별 조별 토론 / 사회복지학과 신자 교수 모임 • 카리타스인의 밤 II / 조별 대표 모임 • 친교 시간
7월 6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토론 • 파견 미사

• 1회 대회의 의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복지 정책 및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고, 이를 통하여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대응 방안과 실천 방법 및 궁극적 지향점을 찾고자 매년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고 종사자의 영성적 지원을 위한 피

정을 개최해 왔지만 무엇보다 카리타스 영성에 대한 고찰과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후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감을 갖고 카리타스 정신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 평 가

10년이 지난 지금 첫 회 행사의 특이점을 찾자면 참석자의 구성이 평신도 59.8%, 수도자 34.8%, 성직자가 4.5%였으며 비신자는 단 1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2010년 대회 때 평신도가 82%, 2016년 대회 때는 89%가 평신도였으며 비신자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마도 첫째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종교적인 면이 강조되지 않을까 싶어하였는지 시설장과 수도자들의 참여가 많아 최근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이해, 가톨릭 사회복지의 과제,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신선한 외부 강의까지 그야말로 2박3일은 종합선물 세트와 같이 알찬 시간이었다.

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홍식 주교님의 주제 강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시작으로 2박3일간의 대회를 통해 ‘카리타스’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 주교님께서 참여자들을 위해 선물해 주신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번째 회칙을 받아들고 설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카리타스 대회가 어쩌면 그 이후의 대회에 가장 큰 핵심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어지는 주제 세미나 “우리는 카리타스인”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카리타스 영성에 대한 이해와 카리타스인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아마 첫째의 자료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화두가 되는 내용들이라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1% 변화가 100% 삶을 바꾼다」의 저자 시각장애인 음악가 임임택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지금은 안타깝게 고인이 된 당시 최고의 인기 강사였던 행복디자이너 최윤희의 행복 강의는 다소 딱딱한 강의 중에도 활력과 웃음을 주었으며 장애인시설과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대원 신부님과 최분이 수녀님의 살아있는 체험담은 경이로운 존경과 숙연함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체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23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첫 행사는 소명 의식 강화와 활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96.4%에 이르며 다음 개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카리타스인! 제2회 사회복지 대회】

- 대회 일자: 2007년 9월 4일(화)~6일(목), 2박 3일
- 대회 장소: 대전 정하상교육회관
- 참가자 규모: 약 220명
- 2007년도 대회 주제: ‘우리는 카리타스인!’
- 일 정

9월 4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미사 • 특별 강연: 유홍식 주교 “카리타스인은 사랑의 증거자, 평화의 구축자 -2007년 국제 카리타스 총회 참가 보고-” • 카리타스인의 밤 I(레크리에이션)
9월 5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미사 • 주제 세미나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 고유 평가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발표: 박문수 교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 실현과 측정기준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중심으로- - 제2주제 발표: 유영준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실현과 평가 기준 (포커스 그룹과 종사자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지정 토론: 전해진, 김지웅, 박세영 • 분야별 조별 토론(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분야별 주제토론) • 친교 시간 “미니 올림픽” • 분야별 조별 토론 발표임 • 전체 친교 시간
9월 6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토론 • 파견 미사(열린 미사)

• 2회 대회 의의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7년도 연구 조사 사업으로 실시한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 평가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연구 조사 사업에 상승효과를 주고자 한 2회 대회는 종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친교의 장이 되었다.

• 평 가

1회 대회가 잘 차려진 코스 정식을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다면, 2회 대회는 우리가 요리 주제에 대해 듣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맛있게 먹었던 자리였다고 회고한다.

당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박문수 박사와 유영준 교수에게 의뢰하여 만든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 고유 평가지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기존 정부 주체 평가 모델을 대체하는 안(案)을 마련하기 위해 가톨릭 사회복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평가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각 교구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를 통해서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평가 영역을 인권, 직원 간 관계, 직원 복지, 지역사회와의 관계, 종교성, 기관 운영으로 나누어 설문과 포커스 그룹 토의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평가 지표를 위한 탐색적 조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들이 카리타스 정체성을 알고 차별성을 갖기 위해 어떤 점들을 갖춰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준 뜻깊은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회 대회의 특징은 토론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동지 의식을 갖게 해 준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주제 토론과 더불어 분야별 토론을 통해 전국 각지의 동료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교구와 시설을 떠나 같은 조원이 된 사람들끼리 신문지 위에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 서로 엮고 부둥켜안으며 신나게 웃는 등 미니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소속감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2회 행사의 또 다른 특별한 일정은 전체 인원이 참여한 열린 미사였다. 슬기, 통달, 효경 등 15개로 나뉜 조별 모든 인원이 기간 내내 톡톡이 모여 준비한 찬양과 울동으로, 또는 짧은 연극으로 아름다운 미사를 드렸던 추억이 참가자들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남았다.

2007년도 전국 사회복지 대회 열린 미사

▶ 일시: 2007년 9월 6일(목) 오전11시

입당 성가: 슬기조, 통달조

제1 독서: 의견조

화답송, 복음 환호송: 지식조, 굳셈조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 1-11)

강론

보편지향 기도: 효경조, 사랑조

봉헌: 기쁨조, 평화조

거룩하시도다: 인내조, 친절조

영성제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음이라.
로다. 주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도다.

성체 성가: 선행조, 진실조

파견 성가: 온유조, 절제조

【하나 된 우리! 제3회 사회복지 대회】

- 대회 일자: 2008년 9월 3일(수)~5일(금), 2박 3일
- 대회 장소: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 참가자 규모: 346명
- 2008년도 대회 주제: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친교와 나눔 그리고 성장-”
- 일정

9월 3일(수) 친교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 미사• 초청 강연 1: 오경환 신부 - 가톨릭사회복지 활동의 정체성과 실무자의 마음가짐 -• 초청 강연 2: 조재연 신부 - 젊은이의 영성과 떼제 기도 -• 전체 친교• 떼제 기도 - 조재연 신부
9월 4일(목) 나눔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I ‘분과 발제 및 사례 발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지역사회 복지영역,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II ‘홍보와 모금 전략(각 교구 발표)’ • 미사 • 문화 공연: 장기자랑, 직장인 밴드, 풍경(송봉주), 둥근 소리 • 영화 상영
9월 5일(금) 성장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토론: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분과 토론 총론 • 파견 미사(열린 미사)

• 3회 대회 의의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카리타스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친교를 나눔으로써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데 의의를 두었다.

• 평 가

3회 대회는 처음으로 외부 숙소를 활용하여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대회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쳤다. 각 교구마다 역할을 분담하여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고 홍보와 모금 전략에 대한 강의도 나누었다. 전 해에 호응이 좋았던 열린 미사도 준비하였다. 참가자들의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전문성보다는 카리타스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앞으로 이 대회의 필요성과 추천 의지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조재연 신부의 강의와 폐제 기도, 그 뒤를 이어 열린 미사였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위안과 격려가 되었다는 답변들이었다. 한편 이 대회의 목표를 친교와 나눔으로 정하다보니 분야별 워크숍과 레크리에이션, 공연 관람에 참여하느라 오히려 2회 때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빴다는 평가가 있었다. 3회 대회 평가를 기점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각 교구별로 참가 접수와 TF팀에 한 명씩 참석하여 준비하기로 하여 그야말로 전국 교구 사회복지회가 더욱 연대하는 계기가 된 대회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친교와 나눔 그리고 성장! 제4회 사회복지대회】

- 대회 일자: 2010년 5월 26일(수)~28일(금), 2박 3일
- 대회 장소: 충남 보령, 대천 한화 콘도
- 참가자 규모: 337명
- 2010년도 대회 주제: ‘우리는 카리타스인’ -친교와 나눔 그리고 성장-
- 일 정

5월 26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미사 • 초청 강연 1: 조재연 신부 • 조별 나눔: 조별 인사 및 현장의 이야기 나눔 • 폐제 기도 및 촛불 의식-조재연 신부
5월 27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I분과 발제 및 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과: ‘한국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따른 가톨릭 노인복지 시설의 대응방안’ ② 분과: ‘천주교 수원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장애인 복지 환경과 가톨릭교회의 역할’ ③ 분과: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천안모이세’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 실천’ ④ 분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아동·청소년복지 제도의 전망과 사례’ ⑤ 분과: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가톨릭 사회복지의 영성(카리타스)’ • 조별 친선 프로그램: 야외에서의 각종 미션 수행 • 미사 • 문화공연: 뮤지컬 ‘마음을 주었습니다’
5월 28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김정옥 교수 - 환경과 생태문제 • 파견 미사(열린 미사)

• 4회 대회 의의

‘우리는 카리타스인’이라는 주제로 연속성을 갖고 정체성과 연대성을 찾는 데 의의를 두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진된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의 카리타스인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평 가

4회 대회 역시 ‘우리는 카리타스인’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교구의 참가자들을 조별로 나누어 2박3일 동안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조원들은 서

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분야, 다른 일을 하지만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고, 다른 지역의 쟁점 이슈와 상황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구 단위로만 모이던 현장의 실무자들은 전국에서 함께하는 많은 카리타스 가족들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연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별 친교 시간에는 오후 한나절 내내 바닷가에서 또는 숲에서 카리타스 마크를 몸으로 표현하는 사진 찍기 미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뮤지컬 ‘마음을 주었습니다’ 관람과 생태 강의였다. 2010년 당시는 온통 4대강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고 천주교에서는 시민단체들과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던 때였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관심이 컸기에 이 대회에서 이슈가 되는 강의를 선정하여 마련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의 강의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의 흐름과 이슈에 민감해야 하며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교육은 한정된 주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 점에서 4회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워크숍을 통한 복지 분야 토론토 의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회를 거듭해 갈수록 각 교구 실무자들의 기획, 준비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함께 운영해 나감으로써,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하지만 15개 교구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자리 잡아 가게 된 점도 앞으로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카리타스의 어제, 오늘, 내일! 제5회 사회복지 대회】

- 대회 일자: 2012년 6월 25일(월)~27일(수), 2박 3일
- 대회 장소: 경북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가자 규모: 338명
- 2012년도 대회 주제: “카리타스의 어제, 오늘, 내일(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
- 일 정

6월 25일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미사 • 주제 강연 1: 강영옥 교수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 이해” • 조별나눔 1
6월 26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 • 주제 강연 2: 도건창 소장 “카리타스의 과거, 현재, 미래” 토론과 질의응답 (김장권 교수, 정진모 관장, 김만호 교수) • 주제 강연 3: 정성환 신부 “카리타스 CI” • 조별 나눔 2: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문화 공연 관람과 조별 활동 • 주제 강연 4: 정성환 신부 조직 관리와 카리타스 리더십 • 조별 나눔 3
6월 27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미사 • 특별 강의: 표경흠 교수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 서비스 실천 전략”

• 5회 대회 의의

그동안의 대회가 카리타스의 이해와 정체성 찾기, 그리고 전국의 카리타스인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5회 대회에서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 보고 현실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 지를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 평 가

카리타스 아카데미 도건창 소장은 주제 강연에서 이 대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이번 대회는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의 정체성과 위상에 관한 확인과 사회복지 종사자

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원리와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 현실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려고 왔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관한 그리스도교 원리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우리 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여기에서 출발해 우리 활동의 미래를 내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공동 목적으로 삼고 지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 같이 실천할 길을 찾는 것이다.”

이는 가톨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그간의 대회 활동을 정리해 보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 대회는 숙소 사정에 따라 각 교구별로 인원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으며, 참여자 87%가 평신도이고 이중 비신자의 비율도 20%에 이를 정도로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라면 한 번쯤 참석해야 할 것 같은 규모 있는 전국 대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첫 주제 강연 ‘새로운 복음화’는 2박3일간의 여정에 있어 우리의 활동을 제시해 주었다. ‘새로운 복음화’란 구체적 상황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알아보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복음화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담대한 행동양식’, 복음의 가치를 ‘식별하는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회복지에 비추어 보면 될 것이다.

토론자 김장권 교수는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사로잡혀 이웃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고통에 몸소 깊이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결국 우리는 그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서 하느님과 깊은 만남과 체험, 즉 성령을 따르는 삶-그리스도교 영성-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의지에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 대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다.

한편 참가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정성환 신부의 ‘조직 관리와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표경흠 교수의 ‘21C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 서비스 실천 전략’인 것을 보면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현장에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천년의 고도, 볼거리 풍부한 경주까지 와서 관광도 못하고 회관에만 있다 가는 것 같아 아쉽다는 평이 가장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이 대회는 꼭 필요하며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초여름을 보낸 귀한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과 소통하다! 제6회 사회복지 대회】

- 대회 일자: 2014년 10월 13일 (월)~15일 (수), 2박 3일
- 대회 장소: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
- 참가자 규모: 403명
- 2014년도 대회 주제: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 정

6월 25일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미사 • 사업 소개: 카리타스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 • 특강: 유경춘 주교 - 카리타스의 시대적 소명 • 사람책 도서관 -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6월 26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함 빙고 게임 • 워크숍 - 월드 카페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진행) • 카리타스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 퀴즈 대회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 주제 발표 세미나 - 지역 사회와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 하춘수(영남대학교 석좌교수)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월평 빌라 이야기: 박시현(월평빌라 사무국장) • 미사 • 대동(공동체) 놀이: 표경흠(웰팜 상임대표)
6월 27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발표 • 파견 미사

• 6회 대회 의의

6회 대회는 혁신을 위한 작업을 기반으로 카리타스를 세상에 알리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대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들이 카리타스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열정과 방법, 표현을 찾고 가톨릭교회가 펼치는 카리타스 활동을 우리 주변과 사회,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상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에 대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 평 가

다섯 차례에 이르는 동안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끊임없이 카리타스 정체성 찾기와 내면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작업을 시도해 왔다. 그간의 평가와 준비 모임에서 우리는 이제는 카리타스와 우리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였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심포지엄 같았다는 지난 대회 평가를 반영하여 6회 대회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였다.

대회 내내 카리타스 사행시 짓기, 카리타스 손도장 찍기, 카리타스 나무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회의장 뒤편에 마련하여 자유 시간 틈틈이 글귀도 적고 사진도 찍는 등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진행해 본 월드 카페는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 프로세스인데 준비 팀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테이블을 옮겨가며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해 평소 느꼈던 생각들을 나누고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사람책, 월평빌라 박시현 국장의 강의와 대동놀이였다. 생생한 현장의 체험이 감동적이었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평가였다.

한편 참가자들의 설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었다. 신자인 종사자들은 강의 만족도나 수준 정도가 매우 좋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신자들은 아직도 카리타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감에 잘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카리타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었고 자긍심이 생겼다는 응답이 많아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자료 발간이나 교구 사회복지회 차원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축제와 같았던 2박3일은 푸르른 자연환경 속에서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어서 이름 그대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세상과 소통하다! 제7회 사회복지 대회】

- 대회 일자: 2016년 3월 16일 (수)-18일 (금), 2박 3일
- 대회 장소: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
- 참가자 규모: 394명

- 2014년도 대회 주제: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 일 정

3월 16일(수) 자비를 체험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미사 • 특강 1: 정성환 신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반포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가 보고” • 폐제 기도, 개인 성찰 시간, 고해성사
3월 17일(목) ‘Yes I do’, ‘Yes We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책 도서관 • 미사 • 특강 2: 신철민 ‘홍보 패러다임’ • 워크숍: 카리타스! 세상과의 소통 실천 방안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진행) • 전체 친교의 시간: 진행- 임동훈
3월 18일(금) 파견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발표 • 파견 미사(자비의 선교사 파견식)

• 7회 대회 의의

‘자비의 희년’(2015. 12. 8.-2016. 11. 20.)을 맞이하여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새롭게 인식하고,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자비의 육체적·영적 활동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회 복음화를 위한 ‘자비의 선교사(일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 주고자 하였다.

• 평가

6회 대회에 이어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 그 두 번째 활동으로 대회 주제를 잡았다. 특별히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만나는 참된 시간이 되는 전대사를 수여한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실천하신 데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구체적으로 치유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치유의 차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를 통해 공

동체의 회개와 사회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명
과도 일맥상통하다.

지난 대회에 이어 카리타스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나 개인, 우리 조직, 더 나
아가서까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람책 도서관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간은
자비의 희년을 맞이해 준비한 떼제 기도와 고해성사 및 사람책 도서관이었다. 업무에 쫓
겨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비의 체험을 듣는 시간도 시간이 촉박할 만
큼 감동이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떼제 기도와 성찰의 시간은 신자와 비신자의 반응이
달라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과제일 것이다.

한편 일정이 너무 길고 빡빡해서 힘들었고 아직도 명확한 핵심 주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많은 참여자들이 좀 더 치유의 시간을 갖고 다
른 지역의 종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원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평가들을
반영하여 기본 핵심은 일관성 있게 갖되 세부적인 진행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나가며

10년간 일곱 번 개최된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를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성장
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되어감에 뿌듯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
해 가야 할 과제들이 보이기도 한다. 또 15개 교구 사회복지회 실무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더욱 끈끈한 연대감과 지속적인 교류, 통일성이 필요함을 알아 이후 교육분
과, 홍보분과, 법인행정분과 등도 더욱 잘 진행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2,279명의 카리타스 종사자들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이중에는 몇 차례 또는 한
차례 참석해 본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해에 참석하였든지 대회의 취지인
카리타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성은 느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처음의 작은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틔어 더욱 푸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이른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모든 카리타스인의 애정과 뜨거운 참여로 아름다운 꽃과
튼실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진옥 관장 |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I. 문제 제기

가톨릭교회가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들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최고 관리자로서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또 이들의 사회복지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것들에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전문성 부족, 직원들에 대한 희생 강요, 다른 사회복지 조직들과 상호 연계하지 않는 폐쇄성, 비전문가인 성직자와 수도자 채용, 시설 규모의 거대화,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1996; 박문수, 2003; 이혜숙, 2001).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간접적 종교적 압력(최혜지·서동명·이은정, 2013)과 사회복지 사업을 자선과 선교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직원들에게 전문성보다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을 요구하는 태도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김희진, 1996).

사회복지 조직의 수도자들이 지닌 또 다른 문제는 활동 수도회가 겪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 속도를 맞춰가지 못하기 때문에(박문수, 2003)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욱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 수도자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전미숙·장성숙, 2007).

수도자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상기의 비판들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만을 가지고 수도자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공정하거나 완전한 이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자들이

*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획한 난

** 본 연구는 필자의 2014년 숭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최고 관리자로 있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균형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최고 관리자의 가치와 삶의 자세가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 목적과 직원들의 활동 내용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남기민, 1985; 박수철 역, 2007; Szilagyi & Wallace, 1983).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 경험을 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게 아닌 논리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제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양적 연구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 관리자인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 탈맥락화시켜 조사한 연구를 통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최고 관리자로써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내밀한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연구들에서 모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수도자와 같은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이유로 일반인과 다른 가치와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수도자의 속성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써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십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써 수도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리더십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조망하여 본질을 규명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이라고 하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밀한 경험의 본질을 가장 잘 포착해 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내재된 본질을 생활한 세계 내의 맥락 속에서 파헤치는 현상학적 연구가 가장 적절할 수 있다(홍기정 역, 2002).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이 형성되고 전개되어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인 가톨릭교회 수도자 12명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연쇄표집(chain sampling)을 통해 선정되었다. 연구자가 회원으로 있는 ‘가톨릭복지기관대표자협의회’의 회원 수도자들을 접촉하였고, 이들을 통해서도 다른 수도자들을 소개받았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가톨릭교회에서 공식으로 인가받은 수도회 소속의 수도자. 둘째, 수도자와 일반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직원에서의 최고 관리자. 셋째,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넷째, 자발적인 참여자 등 이었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정보

번호	코드	성별	연령/ 수도연령	근무기간/ 리더기간	학력/자격	수도회	기관 정보		
							서비스대상 (유형/수탁관계)	직원 수	지역
1	A	여	62/35	30/25	대학원/복지사1급	가	장애영아(거주/직영)	35	부산
2	B	남	64/42	20/10	대학/간호사, 복지사2급	나	노인(거주/직영)	46	전남
3	C	남	47/24	15/10	대학원/간호사, 복지사2급	나	장애인(이용/직영)	52	서울
4	D	여	47/21	11/8	대학원/복지사1급	다	장애인(이용/직영)	61	서울
5	E	여	52/33	20/3.6	대학원/물리/작업치료, 복지사1급	라	종합(이용/수탁)	36	서울
6	F	여	57/33	10/10	대학/유치원장	마	아동(이용/수탁)	24	서울
7	G	여	59/33	10/6	대학/복지사1급	바	노인(거주/수탁)	20	강원
8	H	남	52/24	8/8	대학원/상담, 복지사2급	사	청소년(거주/직영)	26	서울
9	I	여	58/34	12/4	대학/복지사2급	아	여성(이용/수탁)	10	경기
10	J	남	51/25	9/9	대학원/복지사1급	자	노인(거주/직영)	70	전남
11	K	여	48/22	11/8	대학원/복지사1급	차	청소년(거주/수탁)	11	경기
12	L	여	57/28	19/10.6	대학/복지사1급	카	장애인(이용/직영)	54	경기

2.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두 가지 개방형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로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최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신이 느낀 것과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

* 가칭

지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수도자이자 최고 관리자로서 당신이 해 온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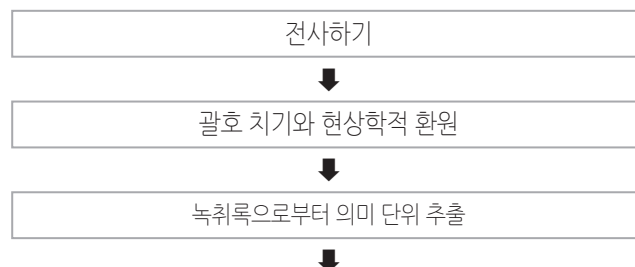
본 연구는 면접 초반에 연구 참여자들이 한 경험의 맥락을 정립하였고, 중반에는 경험이 일어난 맥락에서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이 재구성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면접 마무리 시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반영해 보는 질문을 하였다. 면접 시 연구자의 질문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느낌, 생각을 연구 참여자들이 잘 꺼내놓고 또 면접 방향을 제시하고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간단한 반응을 보이거나 질문할 때 자신의 관점이나 선입견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판단 중지’라고 부르는 괄호 치기(bracketing)를 하였다. 또 다른 괄호 치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관리자 경험에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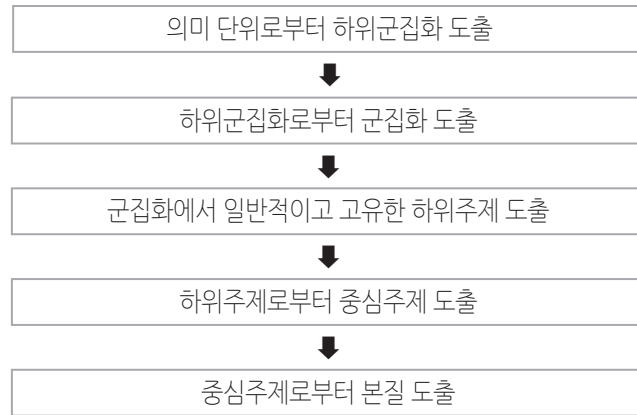
면접은 주로 연구 참여자들의 근무지인 기관장실에서 실시되었고 경우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면접 소요 시간은 대략 90분~120분 간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은 개별 연구 참여자와 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에서의 담화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전에는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최고 관리자로서의 다양한 모습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면접 직전 또는 직후에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고, 동의 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 PC에 연구 참여자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였다. 면접 종료는 새로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이전 면접을 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3.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를 해석해 가면서 변형시키는 방법이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거의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Hycner(1985)의 분석틀을 수정·보완한 8단계 과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참고).





[그림 1] 자료 분석 단계

4. 윤리적 고려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해 유선 또는 대면으로 동의를 먼저 받았다. 구두 동의를 득한 후 면접 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 위험과 불편함, 혜택, 연구 참여 중단에의 자유, 비밀 보장, 비용과 보상, 질문에 대한 답변”(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47인, 2004)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그들의 소속 기관과 그들을 드러나게 하는 특성들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또한 연구의 특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을 속이지 않았으며, 연구 결과에 연구 참여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종합적인 묘사를 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adgett(유태균 역, 2001)이 제안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라포 형성, 자료의 다원화(triangulation), 멤버 체크(member checking), 예외적 사례 분석(negative case), 동료집단의 조언과 지지(peer support group), 감사 자료 남기기(audit trail) 등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본질 직관에 이르는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다.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은 현

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그 자체로 실재하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의 의식작용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지향성) 구성된 의식의 대상이다(조상식, 2002). 연구 현상인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질이나 차원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 경험의 본질의 수도 연구 참여자들의 삶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신경림·안규남 역, 1994).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경험의 본질은 “자기 비움을 통한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로 도출되었다. 이 본질은 그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나 그들의 경험을 듣고 반성한 연구자에게 처음부터 확연히 드러나 보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현상의 본질은 본질 그 자체가 아닌 본질을 내포한 예나 그것이 특수하게 드러나는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기술되는 보편적인 실체이기 때문이다(신경림·안규남 역, 1994).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은 언어적 구성물로서 그 경험적 성질에 대한 기술이자 경험의 여러 현현들 속에 내포된 의미에 대한 기술이기도 하다.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연구자의 현상학적 반성이었다.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그 경험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유보해야만 했다. 연구자의 의식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최고 관리자 경험에 대한 선입견과 가정은 판단 중지(epoch)라고 하는 “괄호 치기”를 필요로 한다. 괄호 치기는 연구자가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을 완전히 낫선 시각으로 보기 위하여 반성(reflection)하는 활동이었다.

경험의 본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익숙해지기 위해 모든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 연구자는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판단을 내려야 했다. 중복되는 의미 단위들을 제거하였고, 단어의 내용, 하나의 의미가 나온 횟수 등에 대해 숙고하였다. 동일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 의미 단위들은 각 녹취록으로부터 취합되어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들끼리 군집화 되었다. 하위군집화로부터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의미 단위들을 재군집화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의미 단위들끼리 군집화 시키기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그 의미 단위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으로 작업을 하여야만 했다. 하위군집화에 있는 의미 단위들은 의미 단위들로 재군집화되었다. 하위 주제들로부터 중심 주제가 도출되는 과정은 강도 있는 추상화와 수렴화가 요구되었다. 중심 주제들에 도달하기 위한 현상학적 환원은 연구자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반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심 주제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가는 과정과 그것이 구성되는 맥락적 요소들이다. 본질이 도출된 과정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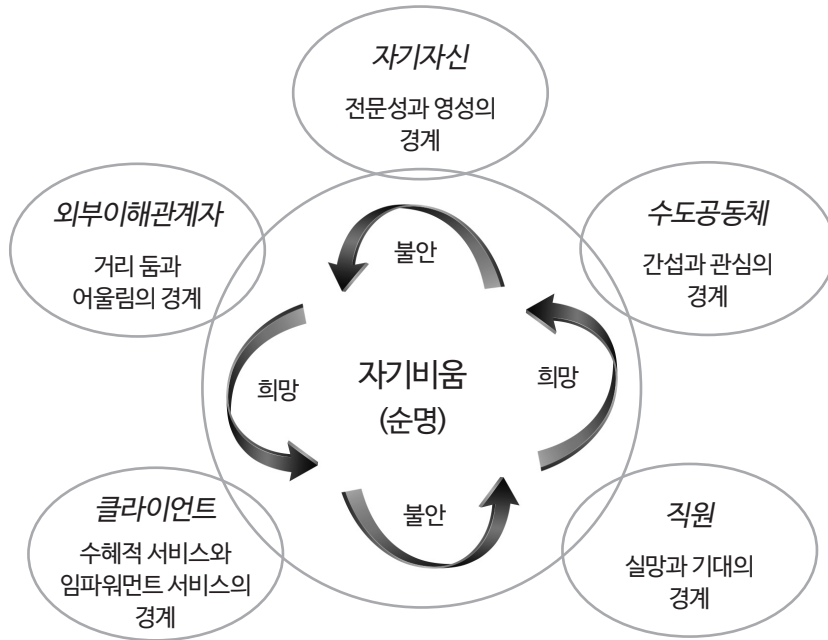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인 “자기 비움을 통한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 비움”이라는 내적 작업과 불안과 희망의 내적 감정이 반복·순환되면서 형성되고 전개되어갔다. 이 본질은 5가지 맥락적 요소들인 “전문성과 영성의 경계”, “간섭과 관심의 경계”, “실망과 기대의 경계”, “수혜적 서비스와 임파워먼트 서비스의 경계”, 그리고 “거리 둠과 어울림의 경계”로 구성되었다.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은 단선적인 과정도 또 일회적으로 완결되는 사건도 아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경계를 경험 하면서 불안과 희망이 변증법적으로 순환·반복하며 전개되는 방식이었다. 즉, 그들이 자기 비움을 통해 경험하는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는 상호교차하고 중첩되면서, 후퇴하고(불안) 전진하며(희망), 다시 후퇴와 전진을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림 2)는 본질의 구성 요소와 전개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이다.

〈표 2〉 군집화, 하위주제, 중심주제

군집화	하위주제	중심주제	연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됨, 주어진 곳 • 원해서 온 게 아님 • 나의 선택이 아님 • 어쩔 수 없이 함 • 잘 모르겠음 • 순명에 의해, 내 의지와 상관없음 • 하느님이 주신 소임 • 하느님의 힘으로 잘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 순명의 의미 추구 • 내 힘이 아님 • 잘 될 것임 • 자신 없음 	자기 비움과 불안과 희망	1. 경험의 본질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성향 • 기도하기 • 하느님의 도구 • 인간적인 전문성 •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문성 • 깊어진 자기인식 • 경험의 다양성 • 자기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 투명성과 윤리성 • 인간적으로 행복하지 않음 • 영적으로는 보람되고 행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지고 획득된 전문성 • 자기를 넘어서는 힘 • 승화된 행복 	전문성과 영성의 경계	2.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자의 거룩함 • 수도회 영성 구현 • 수도생활의 가치 따르기 • 동료회원 간에 성장시키기 • 수도 공동체의 물적 지원 • 수도 공동체의 심적 지지 • 수도 공동체의 간섭과 몰이해 • 수도 공동체의 느린 피드백 • 세상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 되는 수도공동체 • 힘 빼는 수도공동체 	간섭과 관심의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관리의 어려움 • 기대에 부응하지 않음 • 좁힐 수 없는 갭 • 동반자로 여기기 • 수평적 조직 구조 • 신뢰하고 기다려주기 • 보증해 주기 • 경청하기 • 정보 공유하기 • 격려와 지지해 주기 • 사생활 존중하기 • 복리후생 해주기 • 역량강화하고 성장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을 주는 존재 • 성장시키기 • 함께 하는 파트너 	실망과 기대의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의 자세로 돌보기 •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돌보기 • 그들을 위한 규칙 • 돌봄에 내포된 위험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으로 보살핌 • 전달되지 않는 사랑의 돌봄 • 돌보는 마음 살피기 	수혜적 서비스와 임파워먼트 서비스의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관계에서 소극성과 고지식함 • 경쟁에 대한 갈등 • 경영 마인드의 부족 • 세상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부족 • 일반인과 연대하기 •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협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일에 뒤처짐 • 관계함의 내키지 않음 • 함께해야 함 	거리 둠과 어울림의 경계	



[그림 2] 본질 구성 요소 및 전개

2. “자기 비움을 통한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의 형성과 전개 과정

1)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은 수도생활의 본질로서 “순명”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경험의 본질은 연구 참여자들이 최고 관리자로서 소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해 가는 전 과정에 걸쳐 이러한 “자기 비움”과 개인 의지와 하느님의 뜻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서 불안과 희망을 경험하면서 형성되고 전개되어 갔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을 자기 비움을 통해 받아들인 사회복지 조직의 생생한 생활세계의 다양한 경계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진솔로부터 드러난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인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증법적 순환을 거듭하면서 형성되고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

“순명에 의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순명과 연결된 부분이고...”(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이 시작된 첫 출발부터 불안은 시작되고 있었다. 수도회로부터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도 안 하였거나 심지어 그곳만 아니기를 바라던 곳으로 보내어지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 위치는 일반인들이라면 원할 수 있는 자리이겠지만 수도자들에게는 원했던 일도 또 기쁜 일도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처음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된 것도 자신들의 원의에 의해서라기보다 수도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을 비우면서 수도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편치 않은 경험으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순명을 서원한 수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받아들임이었다.

“제가 기관장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 이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연구 참여자 D).

최고 관리자 리더십은 자신들의 의지대로가 아닌 수도회에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자기 비움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자기 비움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자포자기식 포기는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편치 않음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최고 관리자의 자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수도자로서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하느님의 원의로 여기는 순간 불안은 희망으로 승화되었다.

“하느님이 주신 소임이지 사람이 준 소임이 아니다 … 장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일을 주신거기 때문에 … 하느님이 원해서 온 거고 … 순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연구 참여자 E).

2) 경계 살아가기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이 추구하는 영적인 삶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세속적인 삶 사이를 오가면서 불안을 경험하였다. 경계적 존재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경계 바깥쪽인 세속보다는 경계 안쪽인 수도생활의 영역에 확실히 더 기울어져 있었고 그곳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경계의 한 쪽은 수도생활의 가치이자 인류의 가장 거룩한 가치, 가장 심오한 체험, 가장 본질적인 희망과 갈망 등을 증언하는 예언적인 존재들의 삶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수도생활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반된 것들이었다. 이렇게 상반된 가치를 가진 두 세계의 경계를 살아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 두 세계로부터 얻는 풍부함보다는 경계에서 생기는 모호함의 결과인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는 갈등과 불안이라는 정서를 동반하였다(신용문, 2004; 전미숙·장성숙, 2007). 하지만 이 불안은 심리적 불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삶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이끌었고, 여기서 다시 그들은 희망을 향해 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수도자의 고유 정체성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왜 이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정체성이 충돌될 때 되게 힘들어요. ... 수도자들의 생활양식은 함께 공동생활하고, 기도하고, 함께 다 하잖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함께 다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수도자가 늦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 세속 법에 맞춰 정리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E).

수도자로 존재하기와 최고 관리자로 기능하기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중요하였다. 활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질 때 영적인 삶은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도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또한 연구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수도생활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도직 현장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균형이 오기 좀 힘든 거예요. 균형이 깨질 때는 사람이 많이 피폐해지죠. 영적으로, 그러면 제가 기도생활 충분히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 관리자 역할이 기쁘지 않았고 갈등과 고민을 가져다주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가야 되는, 솔직히 기쁘지 않은 ... 참 고민을 많이 해요”(연구 참여자 C).

“제가 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 못해요. ... 기도가 항상 생각이 나요, 뭐 할 때 마다. 그러니 불안하지가 않아요”(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인 불안은 서로 다른 삶의 경계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 근거하였다. 그들은 진술 속에서 불안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경제적 삶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 속에 불안은 은폐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인 자기 비움을 통한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는 최고 관리자 리더십을 수행해 가는 시간성 안에서 형성되고 전개되는 순환적 모습으로 나

타난다. 불안은 자기 비움인 순명으로 받아들인 경계적 삶에서 비롯되었다. 자기 비움은 연구 참여자들이 최고 관리자 역할을 받아들이게 한 원인 행위였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조직 안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전 과정에 걸쳐 끊임없이 의지적 선택을 하며, 거기에서 그들의 불안과 희망은 생겨나고 있었다.

3. 본질 구성 요소

1) 자기 자신: 전문성과 영성의 경계

세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전문성은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도자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전문성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자신들의 전문성이 어떠하든 그들은 늘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며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부족하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함을 느껴요”(참여자 J).

“인간인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도 없으면서도 자신도 없어요”(참여자 K).

2) 수도 공동체: 간섭과 관심의 경계

수도 공동체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활동의 뿌리로서 관리자 역할을 해 나가는 데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주었다. 한편 수도 공동체의 회원들은 최고 관리자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와 지적을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간섭받는다고 여기기도 하였고,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정신적 지지라고 할까, 든든함이 있으니까 … 내적으로 서포트받는…”(참여자 B).
“이것저것 요구가 많았고 … 관장님은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하면서. 그게 다 간섭으로 들리고 또 저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나중에 보니 저를 염려하는 거였죠”(참여자 J).

3) 직원: 실망과 기대의 경계

직원들은 쉽지 않은 존재들인데, 특히 직원들이 연구 참여자들을 관리자보다는 수도자로서 기대할 때 어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직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증해 줌으로써 신뢰를 구축하였다. 직원 양성은 관리자로서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직원 양성 방식은 자신들이 받아온 양성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이를 “예비 수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직원들에게 감사하죠. 이 기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요”(참여자 B).

“수녀님은 거절 안 하실 거야, 이 정도 배려를 해 주시겠지 그래요”(참여자 D).

“그들에게서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속상하고 또 실망도 하고…”(참여자 K).

4) 클라이언트: 수혜적 서비스와 임파워먼트 서비스의 경계

클라이언트는 해결해 줘야 할 욕구를 지닌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땅한 대우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클라이언트를 더 비참하고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지 염려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만든 규칙이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죠.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참여자 F).

“근본적으로 저를 안 좋아해요.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 제가 관리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참여자 L).

5) 외부 이해 관계자: 거리 둠과 어울림의 경계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복지 조직의 관리자와 만남을 통해 정보와 고충까지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도자로서 노출을 꺼리지만 최고 관리자로서는 그와 반대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는 동시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 기관이 하나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설물을 개방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신자들이 와서 같이 미사하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가까워지고 그러다 봉사도 하고”(참여자 B).

“다른 소장님들을 만나면 정보를 많이 얻고 서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참여자 I).

“삶의 방식이 다른 거지, 내가 수도자가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는데”(참여자 F).

IV. 논의 및 함의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의 본질인 “자기 비움을 통한 불안과 희망의 경계 살아가기”는 그들 삶의 전 과정 안에서 형성되고 순환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안은 인간의 마음에 설치해 놓은 하느님의 코드로서, 이로 인해 인간은 하느님을 찾으며 희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고백록에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하나이다.”(정은주 역, 2006: 1권 1장)라고 부르짖었다. 수도자들이 최고 관리자로서 경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불안은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불안과 희망은 수도자들이 자기 자신, 수도공동체, 직원, 클라이언트,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조직 관리의 주요 측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경계를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수도자들이 최고 관리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서 더 나아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느님이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의 함의를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자이자 최고 관리자의 영적 삶과 세속적 삶의 경계를 살아가는 일은 융합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복지 조직의 최고 관리자들을 위해 통합적 이론 구축에 함의를 제공해 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수 신분인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로 드러내게 하는 데 현상학적 연구의 적절성을 보여주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개별 수도회 차원 또는 수도회장상연합회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제공해 준다. 또한 수도자의 정체성 문제의 대안으로는 정부의 간섭이나 감독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사각지대의 사업을 수행한 사회복지 조직을 수도회에서 소수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함의도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자원 관리에 대한 정직한 청지기 자세, 인간 존엄성 존중, 헌신적 봉사 등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조직 관리가 윤리적 문제로 망가진 사회복지 조직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함의가 있다. 그러나 수도자들의 철저함과 투신하는 자세 및 세상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최고 관리자인 수도자들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는 성찰이 필요하겠다.

제언으로 첫째, 수도자들의 최고 관리자 재직 기간에 따른 종단 연구를 한다면 각 시

기별로 리더십 수행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다. 둘째, 최고 관리자와 직원을 쌍방 면접하고 참여 관찰이 동반된 연구를 통해 보다 총체적 차원에서 리더십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질적 및 양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 관리자로서 수도자들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이런 갈등이 이들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자료 수집이 면접으로만 이루어져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편견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균등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의 편견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도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참고 문헌

- 김희진, 1996, “가톨릭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Burnout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기민, 1985,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리더십 통합모형”, 『사회복지학회지』, 7: 51-79.
- 박문수, 2003, “한국 천주교회 활동 수도회의 현황과 전망”, 『신학과철학』, 5: 1-14.
- 박수철 역, 2007, 『Great Leadership: 좋은 리더에서 위대한 리더로』, Bell A., 2006, Great Leadership: What It Is and What It Takes in a Complex World, 서울: 거름.
- 신정림·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van Manen, M., 1990, Research Lived Experience, 서울: 동녘.
- 신정림·조명옥·양진향 외 47인,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남.
- 전미숙·장성숙, 2007, “여성수도자들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와 수도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연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논총』, 12(1): 223-234.
- 조상식, 2002, 『현상학과 교육학』, 서울: 원미사.
- 최혜지·서동명·이은정, 2013,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열린 회의』자료집,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업협회, pp.28-70
- 홍기정 역, 2002,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Barritt, L. S., Beekman, T.,
- Hycner, R. H., 1985, “Some guidelines for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interview data,” Human Studies, 8(3): 279-303.
- Szilagyi, A. D., and Wallace, M. J., 1983,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Glenivew, IL: Scott, Foresman.

카리타스학 실천 방법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전영순(필립보) 수녀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에기노 바이너트 (Egin Weinert)작¹⁾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어릴 적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 예로서 필자의 경우 가족들이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는 시루떡이나 팔죽을 끓여 한 그릇 가득 담아 동네사람들에게 인사하러 다녔다. 해마다 명절이면 어머니는 당시 유행하던 빨간 내의 몇 벌을 사서 포장을 하게 하시고, 이튿날 새벽에 청소부 아저씨, 두부장수, 신문 돌리는 아이, 구두 닦는 아이와 아저씨에게 선물하라고 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왜, 이 추운 겨울 새벽에 내가 그들에게 이 선물을 줘야 해요? 안하면 안 돼요?”하고 물었고, 어머니는 “명절이잖아, 추운데 수고하시잖아.” 하시면서 어린 나에게 매년 명절이나 새

1) 1920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1937년 성 베네딕토회 윈스터슈바르츠 수도원 공방에서 공예 수업을 시작하여 수도자의 신분으로 미술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45년 폭발사고로 오른손을 잃고도 왼손에만 의지하여 그린 그의 작품은 중세 오토시대 미술을 연상시키는 선 구성으로 평온하고 단순한 표현을 추구하며 청·홍의 배합에 금선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현대 종교미술전 “영원의 모습”에 그의 작품이 출품되어 소개된 바 있다.

해가 되면 내의를 준비하고 선물을 주게 하셨다. 나는 이른 새벽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선물을 건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고, 그런 필자에게 어머니는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어머니의 삶은 외할머니와 외증조할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어려서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집 안방에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아줌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점심, 저녁을 먹고 가곤 했다. 초등학생인 나는 “할머니, 저 냄새나는 아줌마 집에 가라고 하면 안 돼요?”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단다. 남편도 없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바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챙길 줄도 모른단다. 그냥 두어라.” 하셨다. “그러면 몸에 냄새 안 나게 씻으라 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차 물으면, 할머니는 “씻을 줄도 모른다. 누군가 씻겨줘야 한다.” 하셨다. 당시 그 아주머니가 매일 할머니 집에 머물다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분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가족처럼 함께 지냈고, 먼 훗날 나는 그 아주머니가 생활 능력이 전혀 없고, 누구한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보여주셨다. 가난한 이들에 대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10,8)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분들은 말없이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느 날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꽃동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우선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는 아파트 옆집,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누가 저희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학생들은 한참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대학교 친구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자기들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라고 지역에 국한된 말을 하는데 ‘나’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번에는 꽃동네대학교를 졸업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결혼 여부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답변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와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뜻과 행동 그리고 느낌을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나와 스스럼없이 웃음과 감사 인사, 간단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기혼인들은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둘째, 대한민국 사람들, 셋째,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답변에서 보이듯이 구

분되는 점은 미혼인 사람들이 학생들처럼 ‘나 또는 자신’ 중심으로 대답을 했다면, 기혼인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정생활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복음적 삶을 느끼고 깨달았으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필자는 1990년도에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에 입회하였다. 그런데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웠는데, 꽃동네에 와서는 가족들에 의해 가족이 버려진다는 것에 매우 당황스러웠다. 가족이 돌봐야 하는 부모형제, 환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70~90년대에 경제적으로 국가와 가정이 어려운 시기에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신생아와 어린이, 노인들을 돌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사랑 실천(caritas)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꽃동네 오웅진 신부는 “거지란 달걀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²⁾라고 정의하였다. 직접적인 구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다 거지인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 분노하고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 데 비해, 나의 육적인 힘은 약해 매일 주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간절함은 나를 더욱 깊은 신앙심으로 이끌어주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더욱 깊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였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도직 현장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했고 수도생활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었다. 이때가 마음의 갈등이 가장 심할 때였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다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하는가?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는다 해도 내가 언제까지나 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카리타스학을 만나다

2000년에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가 처음으로 수도자장상연합회에 등록되었고 그 해

2) 꽃동네사랑의연구소(2006), “꽃동네 영성”, 꽃동네 출판사

에 장상연합회 유아교육분과에서 독일 연수를 추진할 때 나에게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수도자 41명이 함께 한 독일 연수는 나의 수도 여정에서 가난한 이들이 우선이라는 선택을 분명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수도생활 이전부터 갈망했던 학문적인 이론으로서 ‘삶의 상황 중심적인 교육’이었다. 이 상황 중심 교육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교육 방법으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되물으신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루카10,25-29).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10,30-37)를 통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처럼 상황 중심 교육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는 실천 방법이었다. 나는 이 상황 중심을 더 배우고 싶었다. 당시 우리 팀을 이끌었던 한국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회의 남영자 선생님은 필자에게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있다고 권했고 그것이 카리타스학이었다.

2005년 카리타스학을 배우기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갔을 때 필자의 마음은 기뻐 뛰놀았다. 필자는 이때에 “주님! 카리타스학이야말로 참으로 당신을 알리는 새 시대 새 학문입니다. 나는 이 학문을 한국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카리타스학은 새로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하겠습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카리타스학 전 과정은³⁾ 교육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수도생활뿐만 아니라 대학교 강단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지침이 되었다. 카리타스학을 만나면서 필자의 교육학 전공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고 스스로 꽃동네대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갖게 했다. 즉 카리타스학은 대학교에서 사도직을 하는 필자에게도 꽃동네대학교에도 한국가톨릭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새로운 비전이며 교육의 비전이었다.

3) 황용연(2015), “왜 한국교회에 ‘카리타스학’이 필요한가?”, 『가톨릭사회복지』, 여름 통권 42호 48-56면

카리타스학이 증명된 학문입니까? 예, 증명된 학문입니다.

꽃동네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단 두 분야의 학과만 있다. 카리타스학은 개인과 교회 전체 차원에서 가톨릭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행위인 사랑실천(Caritas)을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로서 실천신학에 속한다. 카리타스학의 연구 대상은 교회의 사랑 실천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조직, 그리고 그들의 실천이다. 즉 도움을 받는 자와 주는 자 그리고 사랑 실천 활동을 하는 가톨릭교회와 조직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카리타스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침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현장에서 14년 동안 활동을 했다. 이후 대학교 강단에서 카리타스학(가톨릭 사회복지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때 교육학과 카리타스학을 전공한 필자는 신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여러 교수님과 학자들로부터 “사회복지학도,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카리타스학이 뭐야! 사회복지학과도 관계없는 카리타스학이라는 것이 증명된 학문입니까?”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 가톨릭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운데 단 한 곳도 카리타스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998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했고, 2000년부터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황용연 신부가 카리타스학 강좌를 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 카리타스학 강좌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꽃동네대학교는 2005년에 한국 가톨릭계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카리타스학을 ‘가톨릭 사회복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였다. 카리타스학은 필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도직이었다. 카리타스학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톨릭계 대학교와 가톨릭 사회복지 분야의 정체성이라 믿었기 때문이다.⁴⁾ “가톨릭 사회복지학”이라는 단어는 현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및 몇몇 독일어권 대학교에 설치된 “Caritaswissenschaft und Christliche Sozialarbeit” 학과의 명칭을 번역한 단어로, 직역하면 “카리타스학 및 그리스도교 사회사업학(social work)”이라 할 수 있다.⁵⁾ 당시 꽃동네대학교 이사장이었던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와 재단이사 오웅진 신부가 개신교의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학(Diakonia)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톨릭 사회복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4) 황용연 신부(2015), 위 소고 참고

카리타스학을 배우면서

카리타스학을 배우면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서술할 수 있을까? 필자는 사회에서도 수녀원에서도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나에게 사람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나 하느님 안에서 평등하다.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나는 이 하느님의 자비를 이미 체험하였으며,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특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카리타스학을 만나고 나서야 이 독특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사람에 대한 감각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로서 수녀원에 입회한 후 3개월 되었을 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꽃동네 임종의집(현재 구원의 집)에 파견 근무할 때이다. 노인요양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몸집이 작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고, 듣는 사람이 놀라서 그냥 지나갈 정도로 심했다. 할머니는 양반집 귀한 딸로 살다가 결혼을 하였다. 아기를 낳지 못해 시어른한테 구박받고, 남편이 죽자마자 시댁에서 쫓겨나 남대문시장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병이 들어 꽃동네에 왔다. 몸을 건드리면 욕을 심하게 하다가도 누군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좀 줘!”라고 하면 “배고파? 그럼 안 되지. 이것 먹어!”하며 자신이 먹어야 할 식사를 아낌없이 다 내밀며 먹으라고 하였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근무하던 봉사자와 지원자들이 퇴근하면서 지나가다가 할머니의 몸을 살짝 건드렸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욕을 더 심하게 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저 할머니 평상시에도 원래 그랬어요. 그냥 가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고 익숙한 말이지만 “원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말 그러한지 성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는 “아니, 평상시와는 다른 할머니 목소리입니다. 나는 못가겠습니다.” 함께 있던 지원자가 말렸지만 나는 할머니의 양칼진 목소리에서 몸 어딘가가 심하게 아픈 상황임이 느껴졌다.

5) 이 용어는 2000년 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 산하 카리타스아카데미에서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시작하며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학”으로 번역했다. 그 후 사회복지학과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학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신학의 한 과목으로서 특성을 드러내기 힘들어 2007년(2007.1.15.일자 공문)부터 ‘카리타스학’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카리타스학 관련 학과의 명칭은 중점 교육 목적과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독일 파더본 대학교 신학대학, 파싸우 대학교 신학대학, 스페인 무르시아(Murcia)의 산 안토니오 가톨릭 대학교, 체코 올모츠(Olomouc) 키릴 팔라키 대학교 키릴-메토디우스 신학 그리스도교 사회사업학과 등에 유사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다. 2007년 클라우스 바우만, “카리타스학-학문으로서 카리타스의 근원과 현재”, 김성우 신부 옮김, 『가톨릭 사회복지』, 2015 겨울 통권43호, 51-62면

필자가 할머니 몸을 여기저기 살피는 중에도 할머니는 더욱 심하게 욕을 하며, 발로 차고 밀어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필자는 할머니 오른쪽 발의 복숭아뼈가 많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열이 나고 있었다. 급하게 야간 근무 간호사를 불러 확인하니 염증이 심해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1990년) 꽃동네 인공자애병원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 할머니 정도의 농은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직접 치료했다. 마취 없이 그 농을 짜야 했기에 필자는 할머니의 몸을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할머니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니, 간호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집에 가라고 하였다. 나는 할머니 고통이 더 크니 참겠다고 하고 그 농을 다 짤 때까지 함께하였다.

이후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니 밤 10시가 넘었다. 기도실을 향한 발걸음이 참 가벼웠다. 하느님께서 할머니를 만나게 해 주신 은총이 참으로 고마웠다. 만약 할머니의 고통을 바쁘다고 지나쳐 버리거나 외면했다면 그 농은 뺏속 깊이 들어가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원래 그래!”란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저것은 원래 그래!”라는 말은 오직 창조주 하느님만이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그래!” 라고 하면, 정말 그런지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성찰은 카리타스학 실천 방법 중 첫 번째 단계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카리타스학 방법이 뭐지?

카리타스학 실천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카리타스학의 실천 방법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실천 방법을 따른다. 첫째, 관찰하기(성찰하기, 기술하기) 둘째, 판단하기(신학적, 인문사회과학적 해석) 셋째, 실천하기(실천을 위한 제안 실천 및 평가)다.⁶⁾ 관찰·성찰하기는 인문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사건이나 대상을 관찰하고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 기술·묘사하기, 현실 분석의 원리라고도 한다. 판단하기는 성찰이나 관찰한 내용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 또는 이해하는 것이다. 실천하기는 성찰과 판단을 근거로 잘하고 있다면 촉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6) 독일어 “Sehen 보다 관찰, Urteilen 판단하다, Handeln 실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사회교리에서 사회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특히 “보다 관찰”이라는 의미는 개인, 조직, 사회현상 등 다양한 분야 특히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관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이 성찰은 현실에 대한 성찰이다. 예로서 가난한 사람의 현실과 그 안에서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동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이 발견은 시대의 증표로서 복음에 응답해야 한다. (황용연 신부, “교회의 사랑실천으로서 가톨릭 사회복지”, 카리타스 아카데미 2008년 하계연수)

〈관찰하기〉

현재 나는 수도자이면서 교수로서 사도직 현장이 대학교이다. 앞에서 카리타스학 연구 대상은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그리고 가톨릭교회 조직으로서의 사랑 실천이라고 하였다. 나는 가장 먼저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자신에 대한 관찰을 하였다. 대학교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를 어떻게 만나야 하나? 고민하느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대학교에 올 정도면 생활·문화 수준이 밥을 먹고 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무리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사람이라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대학교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나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교 교수직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학생들을 깊이 만날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14년을 넘게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으면서도 막상 대학교 강단에 섰을 때는 가톨릭계 꽃동네대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정신을 구현할지 학문으로만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막막했다. 그것은 대학교 설립 정신도 나의 그리스도교적인 삶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찰의 대상은 대학생들이었다. 의외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굶주리고 목마른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왔으나 막상 대학교에 들어오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 공부만 해서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 인성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아 자신이 먹은 그릇도 씻지 못하고 뒷정리가 되지 않아 학우들에게 놀림 받는 학생, 기숙사 공동생활을 못해 휴학하는 학생, 경제 사정이 어려워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 교내 식당에서 사 먹을 돈이 없어 굶주린 학생,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학생,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학생, 윤리적인 문제로 고민과 갈등하는 학생 등 직접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카리타스학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가톨릭 신자이면서 수도자인 필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확실했다.

〈판단하기〉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GS 4)⁷⁾에서 “가난한 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참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이 처한 시대적 여건과 환경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면서도 유연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저의

7) GS: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Gaudium et Spes)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발가벗기고 두들겨 맞아 초주검이 된 사람을⁸⁾ 본 세 행인이 그 길에 있었다. 한 사람은 제관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⁹⁾였다. 둘 다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렸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¹⁰⁾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여관을 떠날 때에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고¹¹⁾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은 얼마가 들든지 자기가 다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요건이기 하지만 여기서 인간애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풍부한 인간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사랑실천 활동가에게는 전문적인 훈련 뿐 아니라 ‘마음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에게 언제나 필요한 사랑을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¹²⁾ 라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말씀하셨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민감한 개인 누구나에게 적중한다고 하였다.

〈실천하기〉

그래서 필자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을까? 찾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학생 중에 배굶는 사람이 있어 점심도시락을 3인분 정도 싸갖고 다녔다. 통학하는 학생 중에 부모가 맞벌이 하거나, 편부, 편모로 밥을 먹지 못하고 다니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점차 배굶는 학생 인원이 늘어 연구실에서 밥을 해 먹기로 했다. 배

8)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은 강도들의 습격이 빈번했다. 그 강도들이란 그 지역의 동굴에 은신처를 정하여 살면서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광적인 열성 당원들의 패거리이다. 그들은 그 지역 사람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강도들의 희생자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으며, 심한 상처를 입어 버려진 채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알로이스 스티거, 1991:243).

9) ‘레위 사람’이란 예수 당시 제관 보조역으로서 제사 때 제물을 준비하고 노래를 불렀다. 또한 십일조를 거두어들이고 성전을 경비하는 일도 했다. 제관과 레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동족을 돌보지 않았는지 그 동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2002:333).

10)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원수들이었다. 그들은 아예 상충하지도 않았으며 서로가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알로이스 스티거, 1991:244).

11) 여관 주인에게 준 두 데나리온은 그때에 노동자의 이틀 품삷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많지 않았다. 기원전 140년경 이탈리아에서의 하루 숙박료는 1%데나리온이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위는 영웅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진 그 사람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였다(알로이스 스티거, 1991:244).

12) 교황 베네딕토 16세(200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62-63.

끓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구실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식사 후 바로 수업이 없는 학생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면서 오던 학생들이 어느 날부터가 마음을 활짝 열고 “수녀님 밥 있어요?” “수녀님 안 제실 때도 먹고 가도 되나요?” “수녀님 상담할 수 있어요?” “수녀님 아파요.” 하며 찾아왔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학생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점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학생들과 함께 울면서 공감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수업도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학생에게 컵밥을 손에 쥐어 주며 차에서 먹으면서 가라고 싸주기도 하였다. 부모한테 학대받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연습도 시키는 시간들이 점차 늘었다. 학교 입장에서 연구 실적이 많아야 좋은 교수지만 필자는 현장의 소리가 더 시급하게 느껴졌다.

오늘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복음적’인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직업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¹³⁾ 그것이 나에는 카리타스학이었다. 카리타스학은 나 자신이 하는 모든 사도직을 성찰하게 했고, 그 성찰은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꽃동네대학교에는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사도직 현장에서 현실이 고통스럽다 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게 했을 뿐 아니라, 사도직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연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카리타스학이다.

〈착한사마리아 사람을 통한 카리타스 현장에의 적용〉¹⁴⁾

구분	단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사랑을 실천 하는 사람의 자세
관찰하기	1단계	대상 발견.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	고통 받고 있는 대상을 발견하기 또는 찾아 나섬.
판단하기	2단계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인간의 존엄성: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하다. 연민의 정 · 인간에 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1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84), 「구원에 이르는 고통」(Salvifici Dolor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62.

14) 전영순(2010), '시설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그리고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음성·가평 꽃동네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Theologische Fakultät der Albert - Ludwigs - Universität Freiburg p19-21.

실천하기	3단계	그에게 다가갔다.	먼저 다가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
	4단계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
	5단계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갔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연결. 교회, 그리스도교 단체와 타 기관과의 연대성
	6단계	부탁하고 떠났다.	지속적인 관심(사례 관리)과 지지 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¹⁵⁾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¹⁶⁾ ✱

15) 마태 10,8.

16) 루가 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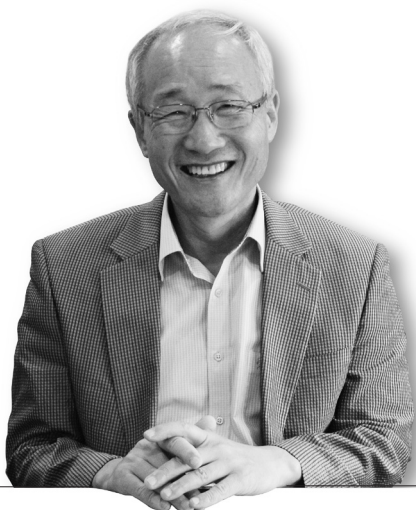
초지일관 장애인과의 동행

산타클로스처럼

헌신, 겸손, 자비의 삶을

선물하며 살아온 이종길 니콜라오 형제

대담 정리 : 객재복 제노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9월의 어느 날, 이종길 (전)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관장을 만나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지원센터(약칭 누림센터)를 방문하였다. 존경하는 대 선배를 인터뷰한다는 부담과 설렘으로 이종길 관장의 삶의 여정을 들었다. 이종길 관장에게는 국내 최초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장애인복지관의 직업 재활 부문(장애인 컴퓨터과 개설, 보호작업장 개설, 부모 주최 자립작업장 성지산업 개설, 직업평가, 지원고용 프로그램 개설, 지원고용 인식개선 비디오 기획 등)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2015년 6월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센터 관장을 정년퇴임하고, 현재 누림센터 연구위원, 자폐인사랑협회 사무국장의 일을 맡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다 더 바빠 보였다. 3시간에 가까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 겸손하면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 놓았다.

♥ 영화 '인턴'의 주인공처럼 그 동안 경험을 나누면서 살아요.

요즈음 몇 가지 일을 관여하고 있어 바쁜 나날을 보내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전환 연구에 평택대학교 권선진 교수와 함께 참여하여,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에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누림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이곳에서 자문을 하고 있어요. 영화 '인턴'의 주인공처럼 권고는 하지만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은퇴자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해요.

발달장애인의 주거 복지인 '캠프 힐'은 발달장애인 부모를 지원하는 일, 발달장애인

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일입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평에 있는 캠프 힐 마을을 닥치는 대로 돕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문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랑협회도 사무국장 일도 맡게 되었어요.

♥ 장애인복지에 평생을 바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처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을 때는 평생 이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복지를 전공하고 '76년부터 창원에 있는 한백창원직업훈련원에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지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초기라서 기술 인력이 모자라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산업체의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하기에 바빴지요. 요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폴리텍 대학의 효시가 된 곳이지요. 그러던 중 옛 캐나다유니태리안 봉사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봉윤 선배님의 권유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되니 함께 하자는 부름을 받고 장애인복지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장애인복지관에 오니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직종이 수공예, 목공예, 도공예 등 장애인에게 불리한 직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지만 취업도 잘 안 되고, 열악한 환경에 취업한다 해도 직장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능력이 없다는 좋지 않은 인식만 기업에 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으로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장애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당당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1984년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컴퓨터 공과” 개설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윗분들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도 없고, 컴퓨터도 필요한데 갖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지요. 때 마침 금성사(지금의 LG)에서 8비트 컴퓨터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서초동 금성사 총판점을 찾아가서 장애인 직업훈련용 컴퓨터가 필요하니 무상 기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열흘정도 지나서 10대를 기증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루 말 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은 말도 안 된다’고 직업재활시설을 하는 선배들에게서 비판과 반대의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복지관 홍보 담당인 이 마리아 씨에게 부탁해서 모 중앙지에 장애인 컴퓨터 교육과 관련한 기사 게재를 요청하여 이슈화를 하였지요. 신문 기사를 보고 각계의 기업체에서 인력 요청이 쇄도하더군요. 장애인들이 밤새워 컴퓨터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되었다는 소식은 재활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 일로 “장애

인 인식개선의 큰 계기”가 되었고, 장애인복지계에서도 후발 직업재활시설들이 너도나도 전산과를 서둘러 개설하는 붐이 일어났지요.

이렇게 장애인직업재활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번에는 컴퓨터도 배울 수 없고 단순기능직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어요. 1992년 말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발달장애인 고용 전문기관 “RISE”에 가서 2주간



대담 장면

지원고용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수공예, 목공예, 도자기과를 폐지하고 훈련교사들을 재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지원고용을 통해서 많은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지원고용을 주요 직업재활 서비스 수단으로 삼는 기관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장애인공단에서도 이제는 지원고용이 활성화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이번에는 취업은커녕 혼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을 조직화하고, ‘자립작업장추진위원회(약칭: 자추위)’를 구성하여 복지관에서 훈련기간이 만료되면 지역사회에서 부모에 의해서 자립, 운영할 자립작업장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어요. 그 모임의 대표 어머니께서 바치는 절절한 기도는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요. “주님. 먼 훗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저에게 보내준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당당하게 잘 키워놓고 왔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듣고 이 부모들을 위해 평생 몸을 바쳐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장애인복지를 꾸준히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실천하려고 했지만,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장애인복지를 하는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이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졌지요.

♥ 캠프 힐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캠프 힐은 오스트리아의 의사 칼 쾨니히에 의해 스코트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독일의 특수교육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인지학이란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신체와 마음을 떠나서 하나의 정신적 존재로 보는 견해지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을 사랑하고, 자연과 접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발도로프 교육과 직업과 생활(주거)을 결합한 공동주거 타운을 형성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캠프힐에서는 불필요한 학습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과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용자가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살고 있지요.

이러한 캠프 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넓은 부지와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고 시설비 등의 부담이 많아서 기존의 장애인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울타리를 헐고 입주 기준 등 지금까지 거주시설로서 가져야 했던 각종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받아들이면서 저녁에는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탈 시설화와 복합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복지지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일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힘이 닿는 한 미력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야 발달장애인은 물론 그 부모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직업훈련생들의 시위가 힘들었지만, 그 일로 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88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생들이 복지관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일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문회지에 특정 선생님을 타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배포 금지를 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지요. 그 때는 실망하여 모든 것 버리고 싶었고, 이 일을 하는 복지관 직원들 모두가 힘들고 좌절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퇴근하면 저녁에 집 주변을 1-2시간 조깅하며 당일 스트레스는 당일 풀어버리는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당시에는 조깅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관악산 연주대에 앉아서 “하느님이 이럴 때는 뭔가를 주신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대화를 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빨리 가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조바심이 날 정도로 커다란 울림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지요. 사제 간 소통의 어려움에서 대화를 하자는 생각으로, 우선 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회의를 통해 훈련생과 적극 대화하겠다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지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학군단 장교 출신으로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하는데 익숙하

였고, 그런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었어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인식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이 일을 통해 인생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후로는 구리, 남양주 복지관에서 일할 때에도 행동 수칙을 적어 “칭찬하기, 격려하기, 용기를 주기 등”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먼저 다가가 대화하기를 힘썼어요.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니 직원들이 참으로 좋아하고, 복지관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직업훈련생들의 시위가 힘들었지만, 그 일로 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불교 신자이셨고, 형님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장로이셨지만, 저는 종교를 가지지 않아서 가족 내에서는 비교적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녀님들과 생활하면서 아침 조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 찬송을 하면서 가톨릭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지요. 수녀님의 권고나 강요가 있었으면 거부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두 번의 피정을 하면서 강렬한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 번 모두 우이동에 있는 예수 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에서 피정을 하였는데, 첫 번째 피정지도자 비오 수사님은 호방하면서 거침이 없는 괴짜이셨어요. 자신을 버리고 수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죠. 두 번째 피정 지도자는 정형준 수사님이신데, 자신을 ‘정말 형편없는 준치’라고 소개를 하여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이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두 분의 수사님이 선택한 삶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 것과 동시에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톨릭의 무엇이 저 분들을 수사로 만들었나?”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면서 가톨릭을 한번 알아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지요.

그래서 1984년 천호동성당에서 교리를 받고 세례명을 결정해야 하는데, 당시 보좌신부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 오늘날 산타클로스라 불리는 성 니콜라오로 하면 어떠냐고 하여서 본명으로 정하였지요. 아내도 개신교 모태 신앙이었으나 개종하여 부부가 같이 영세를 받게 되었어요. 돌이켜 보면 하느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앙으로 변했고, 빈첸시오 활동으로 나누는 삶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 가정생활이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전에는 제 고향이 경상도 이다 보니 남성적, 지배적 리더십으로 감정을 폭발하는 데에 익숙해 있었는데, 영세를 받고 피정을 통해 명상 중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솔



빈첸시오활동, 노인요양원 어르신 불고기 파티, 2004년 여름

되 피정의 집에서 피정 중에 우연히 돼지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미돼지가 많은 새끼를 낳아서 서로 밟고, 기대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서로 사이 좋게 어미젖을 먹는 광경을 보는데 그 가운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갓 미물보다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잘 하리라’, ‘서로 사랑하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요. 아이가 연을 바람에 날리면 구름 위에 연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 누군가 자신을 당긴다고 하듯 “하느님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지난 40년을 무사히 일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게 되더군요. 저는 복지관 정년을 맞아 은퇴하던 날도 “하느님께서 여태까지 잘 이끌어 주셨는데 무슨 은퇴식인가?”하고, 기념식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지요.

신앙을 통한 나눔은 2000년 구리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근에 있는 토평동 성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 전공을 자연스럽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빈첸시오 활동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본당 빈첸시오 활동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빈첸시오회로부터 제게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방법과 지역사회 자원 연결방법을 가르치는 한편, 회원들은 활동내용을 일일이 사례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에 성당에 모여서 자신이 활동한 일을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지원할 방법이나 협력할 일을 논의하는 일까지 지도하고 자문하였지요. 그 당시에는 토평동 성당이 비닐하우스였는데, 주임신부님께서 성당은 못 지어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빈첸시오 활동을 지원하였고, 장학금, 가정 환경 개선, 독거어르신 돕기,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립을 지원하였지요. 회원들은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성심껏 활동하였고 경기북부 의정부 교구에서 모범성당으로 사례발표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신앙으로 변했고, 빈첸시오 활동으로 나누는 삶이 되었어요.

요즈음도 저녁 후에 2시간은 걷습니다. 걸으면서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잊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소진을 막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학교공부도 하고, 목사님, 신부님의 설교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교훈을 접하고, 코미디언의 희극도 듣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지요.

또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혼자만의 여행연습을 통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지요.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민하되 스스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 실패하거나 좌절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철저한 준비와 점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저 자신이 나름 준비한 것이 새로운 일을 잘 헤쳐 나가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 사회복지 선배님들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선배님들이죠. 가까이선 전봉운 회장님과 정진모 관장님을 들 수 있지요. 전봉운 회장님은 회의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심사숙고하면서, 함부로 가부를 쉽게 결정하지 않고 내일 결정하자고 합니다. 회의 참석자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부드럽게 결정하는 여유를 갖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았어요.

정진모 관장님은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사적으로 매우 친한데 일할 때는 공사가 분명하여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항상 선배님이 먼저 사과하면서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에서 아직도 양보와 겸손의 미덕을 많이 배우고 있지요.

♥ 만약 현직으로 돌아간다면 동료 복지사의 인권 옹호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싶어요.

지금 사회복지현장 특히 장애인복지현장에는 중증의 장애인 시설에서 열악한 환경, 스트레스, 감정 노동, 매 맞음의 악순환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현실에서 동료 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그래서 복지부, 인권위원회에 강력하게 호소도 하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동료, 후배 복지사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우울증으로 직장을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현장을 개선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

한 아쉬움에 현직으로 간다면 그런 일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어느 후배가 그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가톨릭 사회복지인은 사회에 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 기관에서 하는 복지는 특별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는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가톨릭의 특성인 보편성을 잘 살려 가톨릭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이는 ‘나’ 혹은 ‘우리’ 중심의 소집단주의를 경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취재 후기

이종길 관장은 일생을 장애인 편에 서서 살아왔으면서도 그 흔한 상도 받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 필자가 이 관장의 정년퇴임을 맞아 국가 포상을 상신하려 했으나, 한사코 고사하며 본인 서명을 거부,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종길 관장을 취재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의 본보기를 보며, 반성과 또 다른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가까이에서 이 관장님을 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필자는 물론 현장의 사회복지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나래울 직원들과의 정년퇴임 인사, 2015. 6월



‘우리 동네 작은 복지관’

송장희 | 제주스마트복지관 총괄팀장

1. 먼저 ‘스마트복지관’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입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상복지관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소할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복지관 청사 건물 없이 공간과 운영인력을 최소한 줄이면서 실제 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 복지관에 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적인 복지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복지관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은 기존의 복지관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3.0 역점추진과제 300선’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보통 복지관을 개관하려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스마트복지관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요?

- 보통 복지관은 건물은 건축하는 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수십억에서 최근 들어서는 100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그렇게 덩치가 큰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려면 연간 수천만 원씩의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문을 연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직원 5명으로 하반기

예산 약 1억5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관 운영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스마트복지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복지관 내에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 이외의 이용 공간이 없기에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운영에서도 복지관 건축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시설 운영비용 등의 절감 등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절약된 예산으로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스마트복지관 사업을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형동과 연동은 제주의 도심지역으로 제주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인구 과밀집 지역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노인복지관’ 한 곳이 운영되고 있긴 한데,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전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들어서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지역사회가 가장 급변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제주도 65만 명, 제주시 47만 명, 연동+노형동 10만 명).

5. 제주스마트복지관이 ‘주민과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사무실로 두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찾아와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직접 찾아가서 문제와 욕구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조차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지원하는 역할이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참여 과정에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때에 따라서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주 가상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제주 가상복지관이 출범하며, 복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경찰서·소방서·동주민센터·제주도청까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주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스마트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관 직원들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을 이용해서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설이 없다는 건 그만큼 복지 서비스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어떤가요?

- 아무래도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 가운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경로식당 사업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복지관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주민 자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모아 필요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주 가상복지관은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합니다



“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

- 그리고 경로당과 같이 주민들 다수가 머무르는 곳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강의실, 문화센터 등의 공간 등을 활용하면 이용 공간이 없는 스마트복지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스마트복지관의 홍보와 욕구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요?

- 홍보를 위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만, SN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적일 수 있고, 정보 접근성의 빈부격차도 존재하며 복지관 사업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시작으로 통반장님, 또는 부녀회, 자원봉사 단체 등과 같은 지역 자생 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역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8.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인지 더 자유로운 활동과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우선 제주시스마트복지관 또한 운영되는 방식은 달라도 지역사회 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지역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가장 먼저 지역주민과 만나서 욕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나 주민들의 욕구가 파악이 된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동네 병의원의 재능기

제주 가상복지관 사업에 기대를 가져보는 5가지



5가지를 기대해봅니다. 복지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전문성 기반의 조직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를 보는 낙인감이 감소되니 사회통합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사회복지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겠죠.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한계, 관리비용의 과다와 효율성 저하, 복지관에 갇힌 물리적 구조 등... 산업화 사회를 넘어선 스마트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입니다.

부를 통한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교통 안전예방 사업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평소에 이루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업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특화사업들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 추가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9.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거라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 텐데,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가상복지관 시범사업은 정부 3.0 역점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지난 9월 29일에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없거나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도 가상복지관 형태의 작은 복지관들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 스마트복지관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걱정은 무엇이 있나요?

-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와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복지 허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에서 스마트복지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역할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복지 허브화 사업과 스마트복지관 사업은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서로 상생하면 할수록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서비스 제공 기관인 복지기관이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에게 설명드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아직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복지기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두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은 같을 터인데 서로 견제하고 비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늦추는 낭비적인 논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책으로 시작되는 복지기관과 협력하고 적극적인 역할 재정립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복지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상의 모든 이를 만나는 곳, 나래울

이종길 前 관장

1. 나래울, 그곳에는 모든 이의 꿈이 있다.

“막내 딸이 중증장애가 있어서 나래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딸을 데려다주고는 헬스, 중국어, 서예, 컴퓨터 등을 배우는데 이곳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장애인, 노인을 비롯해서 모든 화성시민이 이용하다보니 분위기가 활발하고 너무 역동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침체되고 정적인데 여기는 학생들이나 아이들 특히 장애인이 함께 가족단위로 와서 함께 놀고 가니까 장애인을 보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나래울을 많이 자랑하거든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약 30-40분 정도 달리면 오른쪽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끼고 동탄신도시의 마천루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 통합복지타운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듣고 있는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이 구봉산 자락에 자리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건물외관은 웅장해 보이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바리스타들이 끓여내는 그윽한 커피향이 시골 사랑방 같은 향내를 풍기며 손님을 먼저 반긴다. 아직 젖먹이 아기들이 장난감과 신나게 놀이에 빠져서 엄마 아빠와 깔깔대고 그 옆방에서는 애기 엄마들이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당구 치기에 여념이 없다.

나래울은 특별한 것도 없는 그저 우리 동네의 한 모퉁이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동네의 모습이지만 우리사회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이 연출되는 곳이다. 흔히들 소수자를 위한 배려를 한답시고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석을 만들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로 배려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고립의 장이 될 수 있다. 지하철에 마련되어 있는 노약자석은 노약자 보호구역인가, 아니면 사회적 고립석인가?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보호석으로 가지 않고 일반석에 앉거나 서 있으면 오히려 좌불안석이 되는 심정을 소수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까?

그런 면에서 나래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닌 그저 모든 시민이 마음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외국인, 어린 아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공무원 누구라도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전혀 다르게 바라보지 않는 그 곳! 그곳에서 함께 서로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려고 나누고 돕고 이해하며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나래울이다.

2. 왜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2050년 한국사회를 예측한 재정경제부의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국가적 난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실 지금도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은 물론 가족 간 갈등으로 OECD 국가들 중에 자살율이 가장 높은 오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나 국민행복도를 보면 전세계의 200여 개 국가들 중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 대상의 영역을 각기 따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제로 나뉘어져 있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의 조직도 영역별로 분리되어 소위 행정적 「사일로」(칸막이)현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인 통합성이나 협력성, 접근성, 효율성 면에서 모두 상호 호환성이 없는 비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전달의 결과로 해마다 복지예산을 늘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물론 국민전체의 행복도 역시 전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행히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및 전문성 측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욕구와 그 수준의 향상, ‘책무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나래울은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총 6개의 단종 시설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실 각 시설별 특성과 대상별 특성이 다양하여 실질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기능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합화하고 단일화하여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 나래울의 고객감동 서비스는 어디에서 나오나?

나래울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지시설을 통합운영하면서 서비스를 통합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여섯개 유형의 단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한 곳에 모아서 이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조직의 효과적인 구성과 의사결정기구의 통합과 단일화 그리고 원활한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에 일반화되어 있는 서비스 조직의 구성은 대부분 대상별로 서비스 조직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조직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회적 통합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능별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서비스 팀들이 다양한 대상에게 종합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기능 조직 편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결혼이주민, 청년실업자, 주부 등 전 계층을 위한 일자리 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재활사, 직무지도원, 노인일자리전담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Teamwork을 통해 일자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별도의 대상별 일자리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어르신에서부터 청장년층, 아동·유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여러 대상자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역시 대상별 문화센터나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결국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여러 고객들에게 한곳에서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기능조직의 장점은 다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인접분야의 관련 지식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하고 팀웍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으로 고객들은 나래울에서 One-stop으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의 기능별·수평적 구조는 매일 다양한 대상과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나래울 운영의 특성에 있어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효율성과 장점이 많다. 서비스 영역별로 전문 인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배치하지 않아도 유사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원함으로써 인력의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 할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다기능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기본적인 업무소양을 갖추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공통 직원교육과 팀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여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와 다양한 대상 및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나래울에서 전문가들이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발휘하는 기회는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종복지관에 비해 다기능화 된 시설에서의 통합 운영을 경험하기란 매우 드문 일이며, 통합된 조직에서 의사소통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례들은 실무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되며,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나누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음악치료사의 경우 장애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초기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 다양한 대상과 계층을 아우르며 전문적인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팀 내 특수교사 및 사례관리센터의 임상심리사, 진단 담당 사회복지사 등과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교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

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개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전 계층의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지식을 직원교육과 수퍼비전을 통해 획득함으로써 타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 업무 수행과 학습이 지원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인 팀장의 지속적인 업무 수퍼비전과 팀 내 정보 교류와 소통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다각적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4. 여섯 개의 시설이 공간을 함께 나누다

나래울 당구장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시설이다. 오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방과 후 시간에는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가족단위의 이용자가 많다. 이러한 어울림은 어르신이 청소년에게 당구 타구법과 룰을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당구장은 나래울의 '통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당구장에서 휠체어 이용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일반시민과 함께 게임을 하고 당구를 즐긴다. 장애인 박○○씨(37세)는 나래울 당구장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연습 겸 시합을 한다. 당구장에서 늘 만나는 지인들과 주로 경기를 하는 편이고 기량이



뛰어난 다른 장애인에게 배우면서 기량을 쌓고 있다. 박○○씨는 장애인 당구대회에 선수 출전을 목표로 나래울 당구장에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다.

나래울은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복합복지타운으로 세대 간, 장애와 비장애 간의 통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당구장 역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처음에는 노인과 청소년 간의 대립,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용 규정도 수차례 변경하고 시간대를 조정하여 어느 한쪽으로 서비스가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와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에는 세대 간, 장애와 비장애 간의 어울림이 활성화 되었으며, 이제는 서로가 먼저 배려하며 함께 당구를 즐기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

탁구장 역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다보니 많은 민원도 생기고 담당하는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다. 탁구장을 관리하는 팀과 이곳에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팀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안내를 통한 이용인 만족도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부수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르신과 어린이들 많이 찾는 노래방은 시민 고객의 생활 패턴에 따라 아침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낮에는 가정주부들이, 오후에는 학생이나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주로 찾아서 즐기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나래울 편의시설들은 단순한 생활체육이나 즐기는 곳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래울의 장점인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화합하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더 많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즐긴다

고령화, 지식 정보 사회의 도래, 청년 실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변화요인들이 세대 간 갈등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한정적 자원을 두고 벌이는 세대 간 갈등, 가치관의 차이와 정체성의 차이, 정보화 혁명을 통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다양한 갈등이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고 세대 간

통합 보다는 불화를 부추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이 흩어지고 부부와 미혼 자녀만의 초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화합과 세대 간의 사랑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럴수록 세대 간의 더 빈번한 교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시도는 없다.

나래울은 이러한 세대간, 지역 간, 계층 간의 화합과 단결,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하고 있다. 세대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손자녀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 3세대가 함께 도예, 서예, 탁구, 당구,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소통의 기회를 가진다.

어르신 중에 예체능프로그램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 강사로 활약하고 함께 레크리에이션, 노인체험, 세대 이해 강좌, 가족 간 소통사례 발표, 세대 간 토론회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세대(가족)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다른 세대의 특성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며, 가족 내에서 구성원 각자 역할에 대해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가족 관계 증진 및 가족의 순기능과 건강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가족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없애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세대 간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김○○씨 가족의 경우 외국주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6개월 전 귀국하여 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온가족이 함께 게이트볼을 즐기며 가족 간에 가지고 있던 서먹함과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행복해 한다.

6. 어르신과 장애인이 협력하는 ‘공동작업장’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평균 수명 연장은 노인 소득 보장정책 기반이 확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은 고령과 건강사유 등으로 일반기업 및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무수행,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영역의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직업을 갖기 전 고용유지를 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래울 행복한 공동작업장’은 노인과 직업적 중증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노인의 체력적 문제(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제한적임) 등을 장애인이 보완하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직무습득이 느린 장애인의 직업적 문제 등을 노인들이 보완하여 최대한의 생산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공동 작업이 아닌 개별 작업으로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인의 체력적 문제(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제한적임) 등을 장애인이 보완하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직무습득이 느린 장애인의 직업적 문제 등을 노인들이 보완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다.

공동작업장에 참여하는 이○○ 어르신은 “장애인은 난폭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루 사정이 있어 결근을 하면 지금 시간에는 이거 하고 있겠구나, 저거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하루 빠지고 다음 날이 되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너무 좋고 다른 작업장 참여자들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시너지는 장애인 참여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작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



며 일상 생활기술 및 직장 내 예절교육 등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여 사회 적응능력, 개인 적응능력 등 참여자들의 사회성이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노인작업장들은 경로당과 연계하여 작업장을 하는데 수입이 매우 낮으며, 그 수입마저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의 경조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래울 공동작업장의 경우,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소득은 개별로 지급되고 운영비나 기타 회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아 개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7.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다

나래울에서는 한달에 두 번씩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화성시에서 살며 농사지어 수확한 농산물과 임가공하여 생산하는 각종 농수산물과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나래울에서 지역주민 즉, 소비자들과 만나는 「도농 소통」의 광장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알게 되고 농촌의 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반대로 농촌에서 온 생산자들은 도시의 소식과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파악하는 등 상호간에 유익한 만남의 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착한 먹거리와 로컬푸드를 통한 서로 간의 이해와 건강은 덤으로 얻게 된다.

8. '고객과 소통'하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서비스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회복지기관은 고객을 중심으로 하며,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형성 유지와 고객만족에 기반을 둔 기관경영 및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중요한 윤리로 인식되고 있다.

고객관리는 이용자의 이용 상황이나 기호 등의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서비스의 실현이나 마케팅에 활용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고객은 클라이언트(client) 또는 대상자라고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였다면 현재의 고

객은 소비자주의에서 언급되는 고객(consumer) 또는 소비자로서의 의미가 크다. 또한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발전에 참여하는 파트너 관계로 변하고 있다.

나래울은 아동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대화의 광장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불만을 전달하여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렴된 의견이 어떻게 기관운영에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와 고객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또다시 수렴된 의견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에 구축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고객의 자존감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심어주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연대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매월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열린 고객 간담회를 통해 나래울의 이용고객과 지역주민,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함께 배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고객 중심의 기관운영의 실천과 함께 다양한 입장과 욕구들이 어우러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고객게시판 및 고객평가단 운영모습

9. 함께 살아서 행복한 세상 ...

2006년 복지의 지방이양 및 활성화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차별화하는 복지전략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발전적인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복지 전달체계가 산발적이고 다양화하여 투입예산 대비 체감하는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방도 있다.

진정한 복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의 양적인 면보다는 얼마나 시민이 행복해 하는가 하는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나래울 모델]은 대규모 시설의 외관보다는 시민들의 만족감, 행복감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와서 보고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형태의 통합복지 서비스 전달 모델이 전국에 확산되면 산발적 복지전달 시스템을 단일화, 일원화하여 정부의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의 행복감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래울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복지시설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 기관이므로 중앙 정부는 이러한 모델의 한국적 성장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검토하여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겪게될 갈등과 양극화의 혼란한 사회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복지 전달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측면에서 복합성,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통합성,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의 일원화와 협력성, 지역사회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자원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융합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래울 모델의 평가는 이러한 시너지 위에 지역사회와 고객이 느끼는 질적인 내면의 세계를 찾아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가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가서 열매를 맺어라

최정묵 바실리오 신부 /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국장

가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신앙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 1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당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생명의 싹을 잘 키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 30)고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깨끗한 밭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마태 7, 17-18).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좋은 나무로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나무로 가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농사짓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좋은 나무로 만듭니다. 거름도 주고 밭에 난 풀도 뽑아주고 가지도 잘라줍니다. 좋은 열매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전국의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심과 영성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피정에서 한 강의를 게재하는 난이다. 이 글은 지난 2016년 9월 28-30일,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있었던 피정을 지도한 최정묵 신부의 글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 16-18).

1. 좋은 나무 가꾸기

1) 거름주기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름을 줍니다. 거름은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봄에 밭을 갈 때 빈 밭에 두엄을 뿌리고 밭을 갈아엎거나, 독을 쌓을 때 독 밑에 밀 거름을 뿌립니다. 농작물은 살아가는 전 기간 동안 밀거름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을 얻어냅니다. 그 외에 밀거름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는 영양분을 웃거름으로 보충해 줍니다. 농작물에 거름이 필요하듯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도 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행합니다. 기도하기, 미사 참례, 영성체, 여러 가지 성사, 봉사활동, 자선, 희생, 후원, 성경 읽기, 성경 필사, 교리반 인도, 쉬는 교우 인도, 단체 활동, 성지순례, 이 외에도 피정, ME, 꾸르실료, 성령기도회, 셀 기도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전례력에 보면 ○○성월, ○○주일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달, 그 주일에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림시기에 인권주일과 자선주일을 지냅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창세 1, 26)이기 때문입니다. 대림 2주는 특별히 인권이라는 웃거름을 주는 시기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자선입니다. 자선은 주님의 요구(루카 12, 33)이기 때문입니다. 대림 3주는 특별히 자선이라는 웃거름을 주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그래야 필요한 거름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름을 필요할 때 주어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 김매기

거름만 준다고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 주위의 잡초들이 나무를 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잡초는 농작물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잡초는 어릴 때 뽑아주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줄기에서 뿌리

를 내려 어디가 뿌리의 시작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심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생명의 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는 잡초가 하나 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마태 13, 27-28).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도 아닌데 잡초들이 생겼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 듯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 시기, 질투, 증오, 게으름, 교만, 이기심, 미움, 이외에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잡초가 많습니다. 이런 잡초는 하느님의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잡초들로 가득차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욕심쟁이, 저 게으름뱅이, 저 교만덩어리, 저 질투의 화신, 저 미운 오리새끼, 저 이기적인 인간 등. 하느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보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로 깨끗해졌다고 늘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짓는데 고해성사 때마다 되풀이해야 하느냐?” 하고요. 한 번 뽑아준 잡초가 다시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부는 똑같은 풀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줍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풀이되는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통해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잡초가 깊게 뿌리박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3) 가지치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른 봄에 농부는 과일 나무의 가지를 쳐줍니다. 잔가지들은 나무를 부실하게 만듭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큰 가지를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잔가지들은 통풍 및 햇빛 받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통풍이 안 되고 습하면 열매가 썩거나 병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여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이른 봄, 날이 풀리기도 전에 나무의 가지를 잘라줍니다.

오이, 호박, 토마토, 참외, 수박, 고추 등도 순을 잘라주든지 곁가지를 따 줍니다. 좋은 열매를 얻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마태 3,10 참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 한 마디와 행동 하나

하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느님의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결가지입니다. 가지치기는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기에 고통이 따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농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나의 결가지를 잘라주는 농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긴장시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있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이는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는 농부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소 한 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가지를 잘라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은 열매

거름주기, 김매기, 가지치기를 통해 좋은 나무로 만들었으면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열매란 어떤 열매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빛깔, 모양, 맛(향기)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좋은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빛깔

좋은 열매는 우선 빛깔이 고와야 합니다. 가을에 사과 과수원을 보면 나무 밑에 은박지를 깔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의 그늘진 곳에 빛을 반사시켜 골고루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열매의 빛깔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1테살 5,16). 우리의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좋은 빛깔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잘 놀다가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엄마가 보이면 울음을 멈추고 웃습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나는 끊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셨습니다(루카 15, 11-32 참조). 이런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인상 찌푸리고, 얼굴 찡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열매라 할 수 없습니다.

2) 모양

두 번째 좋은 열매의 조건은 모양입니다.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둥그란 것이냐, 길쭉한 것이냐, 짧은 것이냐, 긴 것이냐 등.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이나 호박은 길쭉하고 매끈해야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중 모양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테살 5,17).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며 대화합니다. 바리사이들은 머리 꼴꼴이 세우고 잘난 체 떠들어 댁니다(루카 18,11-12 참조).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루카 18,13)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루카 18, 14)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잘난 체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스러운 소리나 험뜯는 소리는 자신을 높이하고자 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기도한다면 따뜻한 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감동을 주는 말과 행동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품가치가 있는 좋은 모양입니다.

3) 맛

세 번째 좋은 열매의 조건은 맛입니다. 그 열매의 고유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당도가 얼마나 되는가, 향기는 있는가, 상큼한 맛, 담백한 맛, 단맛, 신맛 등 그에 합당한 맛이 있습니다. 맛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맛이 있는 음식점은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빛깔이 좋고 잘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의 고유한 맛이 없으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맛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8)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찮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잘것없이 적은 양이었지만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마태 14,13-21; 마태 15,32-39 참조). 내가 가진 것

이 적을 때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날마다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알아보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도록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거름주기, 김매기, 가지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기쁨, 기도, 감사의 삶입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데살 5, 16-18).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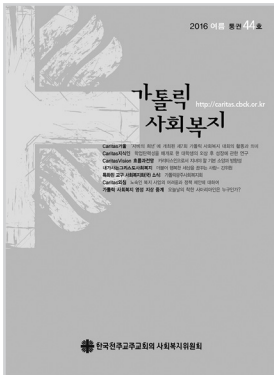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소식

2016년 6월~11월

사회복지위원회

■ 학술지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제44호 발행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운회 주교)는 2016년 6월 30 일(목) 교회 복지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술지 「가톨릭사

회복지」 통권 제44호를 발행하였다.

‘Caritas 거울’에는 자비의 희년에 개최된 제7회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활동과 의미에 대하여 실었으며, ‘Caritas 지식인’에는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자료를 요약하고, ‘CaritasVision 흐름과 전망’에는 카리타스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방향성을 소개하였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회 복지’에는 광주 여민동락 공동체 강위원 대표의 인터뷰 글을 실었다. ‘Caritas 외침’에는 노숙인 복지사업의 어려움과 정책 제언과 ‘교구 사회복지회(국) 특화 사업’은 광주대교구 사회

복지회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하였다. ‘가톨릭 사회 복지 영성 지상 중계’에는 2016년 제2차 전국 사회 복지 종사자 피정 (2016년 5월 18-20일, 서울성가소비녀회 피정의 집)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었다. 총 84면, 3,800부를 제작하였으며 교구 사회복지회(국)를 통하여 전국 본당과 사회 복지 기관·시설,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 2016년도 제3-4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가톨릭 사회 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쉼과 영성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제3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을 6월 22일(수)-24일(금) 경기도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기관의 직원 55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화해’-하느님께 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2코린 5,18)라는 주제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하였고, 김인권 신부(서울가

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이은형 신부(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 센터장), 강주석 신부(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가 강의하였다.

제4차 전국 피정은 7월 12일(화)~14일(목) 대구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 96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정성환 신부(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반포 10주년 로마 국제회의 내용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지도하였다.

■ 2016년 7월 19일 회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7월 19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18차 운영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김운회 주교 외 10명의 위원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후반기 사업 계획과 2017년 사회 복지 종사자 해외 연수와 전국 가톨릭 사회 복지 직원 피정 운영 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2016년도 제5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제5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을 9월 28일(수)~30일(금)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기관의 직원 97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사회복지, 왜 교회에서 하는가?”라는 주제로 청주교구 사회복지국에서 주관하였고, 최정묵 신부(청주교구 사회복지국 국장)가 강의하였다.

■ 2016년도 제6-7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제6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을 10월 26일(수)~28일(금) 피아골 피정 집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피정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최기원 신부(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회장)가 “쉼[休],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코 6,31)”라는 주제로 지도하였고, 77명이 참가하였다.

제7차 전국 피정은 11월 14일(월)~17일(목),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현경훈 신부(제주교구 사회복지회 회장)의 피정 지도로 진행되었고, 89명이 참가하였다.

■ 2016년 11월 23일 회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11월 23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김운회 주교와 위원 사제 8명이 참석하였으며, 2016년도 가결산을 보고를 하고, 2017년도 전국 복지 협의단체 지원금 배정 심의와 2017년 주요 사업 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2015년도 연례보고서 발행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이자 한국 교회의 공식 해외원조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전 세계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단체들에게 알리고 연대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도 연례보고서'를 제작하였다. 6월 3일에 발행된 연례보고서는 총 300부 제작되었다.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제작된 연례보고서는 6월 개최된 아시아 카리타스 총회에 참석한 카리타스 파트너 기구들에게 배포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카리타스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 2016년도 아시아 카리타스 총회 및 포럼 참가

지난 6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카리타스 지역 총회와 포럼 및 워크숍에 국제협력팀 신용주 씨가 참가하였다. 6월 10일 개최된 지역 총회에는 15개 아시아 카리타스 회원기구 대표 42명이 참가하였고 아시아 카리타스 주제별 프로그램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보고, 아시아 카리타스 재정 보고, 국제 카리타스 및 아시아 카리타스 회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총회에 앞서 6월 6-7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26개 아시아 카리타스 회원기구에서 총 57명이 참가하였다. 6월 8-9일에 개최된 아시아 지역 파트너 포

럼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량강화, 아시아 카리타스의 참여적 평가 과정, 국제 카리타스의 전략적 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아시아 지역 파트너 포럼에는 아시아 카리타스의 회원기구와 비아시아 카리타스 파트너기구, 국제 카리타스 본부의 참가자 총 63명이 참가하였다.

■ 제1차 대북지원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7월 15일(금), 제1차 한국 카리타스 대북지원자문위원회 회의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5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위원장 이종건 시메온 신부 외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2016년 상반기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톨릭의료협회 김지원 국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대북의료지원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약속하였다.

■ 해외원조 후원회보 「희망」 제85호, 제86호 발행

한국 카리타스의 해외원조 활동을 알리며 후원회원들에게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회보 「희망」 제85호가 2016년 6월 28일에, 제86호가 9월 22일에 각 총 16면으로 15,000부씩 제작되어 후원회원과 전국 본당 및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배포되었다. 제85호는 한국 카리타스 노총레수녀의 인사글로 시작하여 주요 소식으로



는 에콰도르 지진 피해 긴급구호 소식과 2016년도 2분기 긴급구호 지원 사업 내용을 실었다. 또한 케냐 식량 안정 사업에 대한 보고와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아 퇴치 환경 캠페인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 제86호는 한국 카리타스 운

영위원 석일웅 수사의 인사글로 시작하여 주요 소식으로는 아이티 영양실조 모자 식량 지원 사업 내용과 보코하람 분쟁 피해 긴급구호 내용을 실었다. 또한 3분기 긴급구호 사업 소개 내용과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2016년 기아퇴치 환경 캠페인 특집 기사와 후원 회원의 편지 내용을 담았다.

■ 2016년도 제3차 해외원조 심의 실시

한국 카리타스는 2016년 6월 29일(수), 한국 카리타스 사무국에서 2016년도 제3차 해외원조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 카리타스 긴급구호 8개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 긴급구호 사업에 미화 200,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르완다의 부룬디 난민 긴급구호	USD 50,000
수단의 남코르도판 분쟁 피해 긴급구호	USD 50,000
캄보디아 가뭄 피해 긴급구호	USD 50,000
시리아 하사케 지역 내전 피해 긴급구호	USD 50,000

■ 2016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7일(수)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건 신부 외 6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도 4차 해외원조 사업을 심의하여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 2016 제4차 해외원조 실시

제2차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카리타스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국제 카리타스 긴급구호 3개 사업과 시리아 긴급구호 1개 사업에 미화 320,000달러, 국제 카리타스 대북지원 사업에 미화 400,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긴급구호 사업	USD 100,000
세네갈 식량 위기 긴급구호 사업	USD 100,000
인도 홍수 피해 긴급구호 사업	USD 50,000
시리아 라타키아 지역 분쟁 피해 긴급구호 사업	USD 70,000
국제 카리타스 대북지원 사업	USD 400,000

■ 2016 가톨릭 해외원조 네트워크 모임 개최

가톨릭 해외원조 네트워크 모임이 지난 9



월 28일(수)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교구, 수도회, 단체 등 20개 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가톨릭교회 내 해외원조 주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한국 카리타스는 2011년부터 가톨릭 해외원조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협력’이란 주제로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의 강연이 있었고, 이후 진행된 발표에서는 해외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11개 기관들이 참가자들에게 사업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모든 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주요 사업 분야, 대상, 나라 등의 정보를 서로 나누었다.

■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사장 김운회 주교)은 2016년 1월부터 ‘인류는 한 가족, 모든 피조물 보호’라는 주제로 지구촌 기아퇴치 캠페인 2단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히 2016년 한 해 동안 음식물, 예

너지, 물,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목표로 우리의 인식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활동



을 펼치고 있다. 9-11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직원들과 함께 ‘낭비를 줄여요’ 캠페인을 진행하여 약 80명의 직원들이 생활 속 낭비를 줄이는 활동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한 11월 18일에 볼리비아 기숙사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직원들이 물품 기증과 판매, 기부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였다.

■ 대전교구 전민동 성당 홍보 활동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6년 10월 22일(토)-23일(일) 대전교구 전민동 성당(주임 방경석 신부)에서 해외 원조 후원 모금 활동을 하였다. 사무국장 이종건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소외로 고통 받는 이웃들의 상황을 알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의미와 실천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번 홍보 활동으로 220명이 해외 원조 후원회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6년 11월 16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장 이종건 신부 외 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201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2017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2016년도 제5차 긴급 구호 사업과 2017년도 개발 협력 사업을 심의하였다.

■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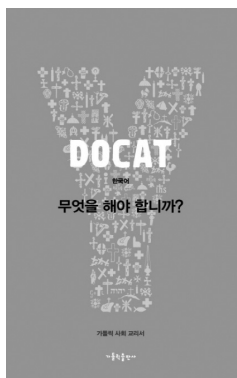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6년 11월 23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사장 김운회 주교와 정신철 주교, 홍부희 신부, 신인미 수녀, 윤형한 변호사 등 이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고 2016년도 사업 실적을 보

고하였다. 또한 2017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2016년도 제5차 긴급 구호 사업과 2017년도 개발 협력 사업을 승인하였다.

■ 제5차 해외 원조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6년 11월 23일(수) 제2차 정기 이사회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 카리타스 긴급 구호 8개 사업에 미화 750,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내용	금액(미화: \$)
미얀마 카친주 분쟁 피해 긴급구호	100,000
짐바브웨 식량위기 긴급구호	100,000
시에라리온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	50,000
차드 나이지리아 난민 긴급구호	100,000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긴급구호	100,000
카메룬 보코하람 분쟁 피해 긴급구호	100,000
아이티 허리케인 피해 복구 및 재활	100,000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100,000



DOCAT

가톨릭 사회복지와 사회교리의 관계는 밀접하다. 가톨릭 사회복지가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현장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회교리를 공부했고 더러 강의도 하는 입장에서 신자분들에게 어떤 사회교리 책을 소개할까 늘 고민이 많았다. 공식 교리서 「간추린 사회교리」는 두껍고 문장이 길고 문체도 딱딱해 권하기가 꺼려졌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대부분 해결한 새 사회교리 책이 번역돼 나왔다. 「DOCAT」(두캣, Do Catechism, 즉 ‘실천 교리’라는 뜻이다)이다. 이 책은 다음 네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신앙생활과 일치시키고자 할 때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망라해 답을 시도하고 있다. 질문이 무려 328개에 달한다.

둘째, 열두 개 각 단원 끝에 수록된 관련 주제의 사회 회칙, 교황청 문헌, 대륙 주교회의의 문헌들의 인용구들 역시 잘 선별되어 있다.

셋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책의 장점은 ‘쉽다’는 데 있다. 읽어나갈 때 막히는 대목이 적다.

마지막으로, 편집이 신선타다. 오십대부터는 조금 어수선타다고 느끼겠지만 그 이하의 연령대는 무난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교리는 아는 데 그쳐선 곤란하다.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 구체적 삶이란 교황님도 이 책 추천사에서 쓰셨듯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환난을 겪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처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회엔 말만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많이 배워 남을 억압하는 이들도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꾸준히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이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시민이자 신자다. 이 책은 이런 신자, 시민이 되는 데 꼭 필요한 책이다.

주

소

록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전화 02)460-7641 · 팩스 460-7629 · E-mail caritascor@daum.net · <http://caritas.cbck.or.kr>

●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전화 02)460-7639 · 팩스 460-7617 · E-mail caritas@cbck.or.kr · <http://www.caritas.or.kr>

● **교구 사회복지회(국)**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번지 (61244)
전화 062)510-2882 · 팩스 510-2889 · E-mail gjcaritas@daum.net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별관 (41969)
전화 053)253-9991 · 팩스 253-3888 · E-mail dgcaritas@dgcaritas.or.kr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2 가톨릭사회복지회관 (34438)
전화 042)635-5111 · 팩스 625-6111 · E-mail caritastj@catholic.or.kr

마산교구 사회복지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교구청 내 (51727)
전화 055)249-7041~2 · 팩스 249-7044 · E-mail bokji2@cathms.or.kr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37. 로사리오 카리타스 (46267)
전화 051)516-0815 · 팩스 516-0816 · E-mail caritasbs@daum.net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04537)
전화 02)776-1314 · 팩스 754-5636 · E-mail caritasseoul@daum.net

수원가톨릭사회복지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2층 (14001)
전화 031)441-5833 · 팩스 441-5834 · E-mail cssw@casuwon.or.kr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경북 영주시 봉화로 2, 2층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36065)
전화 054)633-6761~2 · 팩스 633-6940 · E-mail caritasandong@daum.net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도 원주시 개륜 1길 65 (26331)
전화 033)731-4557~8 · 팩스 731-4559 · E-mail wjcaritas@catholic.or.kr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5번길 27 (11674)
전화 031)850-1481~3 · 팩스 873-4482 · E-mail caritas@ujb.ucatholic.or.kr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3 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 202호 (22321)
전화 032)765-6966 · 팩스 762-9193 · E-mail bokji6966@naver.com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교구청 2층 (55036)
전화 063)230-1073~5 · 팩스 284-4855 · E-mail sarangdari@daum.net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특별자치도 관덕로 8길 14 제주교구청 내 (63168)
전화 064)729-9511 · 팩스 729-9518 · E-mail caritasjeju@naver.com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내 (28337)
전화 043)210-1714 · 팩스 210-1797 · E-mail caritas-cj@daum.net

춘천교구 사회복지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7번길 54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관 (24355)
전화 033)243-4545 · 팩스 243-4546 · E-mail cccaritas@daum.net

● 복지분야별 전국협의단체

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9-6 작은형제회 102호 (02837)
전화 02)762-8155 · 팩스 763-8050 · E-mail mari9180@hanmail.net

가톨릭나사사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 양화로8길 25-8 정보빌라트 402호 (04044)
전화 02)3144-6311 · 팩스 3144-6312 · E-mail clwak@catholic.or.kr

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내 (28337)
전화 043)210-1714 · 팩스 210-1797 · E-mail caritas-cj@daum.net

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 · 서울 강북구 노해로 29 (01078)
전화 02)995-7394 · 팩스 903-5119 · E-mail appffaa@daum.net

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61 (26415)
E-mail zzounnal@hanmail.net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3 (대청타워) 1335호 (06336)
전화 02)451-0333~4 · 팩스 459-3869 · E-mail webmaster@blindmission.or.kr

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 E-mail hangajang1@hanmail.net

마을과아이들(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
서울 중구 난계로 11길 30, 104동 504호 (황학동코아루)(04575)
전화 02)773-0102 · 팩스 6353-1709 · E-mail ecaritasorg@hanmail.net

가톨릭레드리본 ·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04537)
전화 02)753-2037~8 · 팩스 333-4938 · E-mail redribbon@catholic.or.kr

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들꽃마을 (40153)
전화 054)956-9800 · E-mail ca21116@hanmail.net

한국 천주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이웃사랑을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이들을 보듬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이들과 어울려 참 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전국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교회의 구호, 복지, 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격려하며 정책 제안과 함께 이를 위한 인적, 기술적,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는 교회 복지활동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도와 특성을 살린 교회 복지 전달체계와 정책을 개발하고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문

정성환(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최정목(청주교구 사회복지국 국장)
현경훈(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유충희(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김종민(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박문수(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유영준(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진희(인천교구 사회복지회)
정진모(비영리컨설팅 웰핍 대표)

가톨릭사회복지

펴낸이 : 김윤희

엮은이 : 정성환

편 집 : 서창원

편 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전화 02)460-7641 / 팩스 02)460-7629

<http://caritas.cbck.or.kr> / caritascor@daum.net

발행일 : 2017년 1월 6일

제 작 : (주)더셀 02)2264-9293